

서울 등산관광 안내서

SEOUL MOUNTAINS

서울 등산관광 안내서

북한산·인왕산·북악산·관악산

서울 등산관광 안내서

북한산·인왕산·북악산·관악산



목차

002 ALL ABOUT SEOUL HIKING TOURISM
서울에서 즐기는 하이킹 여행

PART. 1

북한산국립공원

- 004 INTRO 도심 속에 우뚝 선 국립공원
- 010 HIKING COURSE MAP 북한산국립공원 하이킹 맵
- 012 COURSE 01 백운대-우이구곡 코스
- 014 COURSE 02 북한산성-대남문 코스
- 016 COURSE 03 사모바위-비봉 코스
- 018 COURSE 04 삼천사 코스
- 020 COURSE 05 북한산성 12성문 완주 코스
- 024 COURSE 06 도봉산 신선대 코스
- 026 COURSE 07 도봉산 주능선 코스
- 028 COURSE 08 북한산돌레길: 우이령길 코스
- 030 EDITOR'S PICK 자연과 도심을 오가는 여행
- 036 COLUMN 북한산을 지키는 봄의 전령사

PART. 2

인왕산

- 038 INTRO 서울을 한눈에 조망하며 걷는 산길
- 044 HIKING COURSE MAP 인왕산 하이킹 맵
- 046 COURSE 01 선바위 코스
- 048 COURSE 02 한양도성 코스
- 050 COURSE 03 흥지문 및 탕춘대성 코스
- 052 COURSE 04 부암동 코스
- 054 COURSE 05 인왕산 자락길 코스
- 056 COURSE 06 인왕산 숲길 코스
- 058 COURSE 07 인왕산돌레길: 서대문 코스
- 060 COURSE 08 인왕산돌레길: 종로 코스
- 062 EDITOR'S PICK 예술적 영감을 위한 여정
- 068 COLUMN 인왕제색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

PART. 3

북악산

- 070 INTRO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마운틴 테라피
- 076 HIKING COURSE MAP 북악산 하이킹 맵
- 078 COURSE 01 창의문 - 백악마루 코스
- 080 COURSE 02 청와대 - 삼청공원 코스
- 082 COURSE 03 청와대전망대 - 춘추관 코스
- 084 COURSE 04 창의문 - 혜화문 코스
- 086 COURSE 05 창의문 - 말바위 코스
- 088 COURSE 06 여래사 - 호경암 코스
- 090 COURSE 07 북악하늘길 코스
- 092 COURSE 08 백사실계곡 - 성균관 코스
- 094 EDITOR'S PICK 마음을 채워주는 힐링 로드
- 100 COLUMN 풍수지리로 보는 북악산

PART. 4

관악산

- 102 INTRO 활력 넘치는 도심 속 에너지 충전소
- 108 HIKING COURSE MAP 관악산 하이킹 맵
- 110 COURSE 01 연주대 A 코스
- 112 COURSE 02 연주대 B 계곡 코스
- 114 COURSE 03 자운암능선 코스
- 116 COURSE 04 학바위등선 코스
- 118 COURSE 05 돌산 코스
- 120 COURSE 06 삼성산 코스
- 122 COURSE 07 도림천(신림)계곡 코스
- 124 COURSE 08 서울돌레길 12코스
- 126 EDITOR'S PICK 도시의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
- 132 COLUMN 조선 왕실의 상징, 해치

코스 맵



코스 난이도 (쉬움 / 보통 / 어려움)

구간 난이도를 고려한 각 코스 전체 이동경로의 평균 난이도

구간 난이도 기준

- 매우 쉬움 노면이 아주 평坦해 유모차 등도 이동할 수 있는 구간으로 어르신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걷기 좋은 길이다.
- 쉬움 아이들과 함께 운동화를 신고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한 흙길 위주의 등산로로 구간으로 약간의 암반이 있을 수 있다.
- 보통 등산화나 등신복을 갖춰 올라야 할 구간으로 노면이 대부분 흙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하나 목재 계단이나 암반, 암릉을 만날 수 있다.
- 어려움 등산용품을 제대로 갖춰 산행을 준비해야 한다. 노면이 톨인 구간이 비교적 많고 경사가 상당해 로프와 사다리 등이 설치된 암반, 암릉이 있다.

본 가이드북의 저작권은 서울관광재단에 있습니다. 발행처의 서면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든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모든 정보가 정확하도록 현지 취재를 진행하여 업데이트된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이 안내 책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손실, 상해, 불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ADY FOR HIKING

한눈에 보는 코스별 난이도

안전한 하이킹을 위한 준비물과 계절별 팁

ECO ADVENTURER

환경을 지키는 클린 하이킹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서울관광재단 기획제작 서울관광재단
저작 김우선·정종원·진우석·김성주·헬로트레킹
취재·촬영·디자인 (주)에이지커뮤니케이션즈
사진 김정호·오충석·김남우·김현민
편집 (주)영진씨앤피

서울에서 즐기는 하이킹 여행

서울이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이유는 도심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산들이 있어서다. 서울의 동서남북에 위치하여 사방을 감싸주는 듯한 외사산으로는 북한산과 덕양산, 관악산, 용마산이 위엄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안쪽으로는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의 내사산이 위치해 도심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따라 여유로운 하이킹 여행을 즐겨보자.

* 서울 등산관광센터의 시기별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발 전 체크리스트

- 에너지 소모로 인해 탈수가 생기지 않게 1L 정도의 물 또는 이온 음료를 준비한다.
- 산에서는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 빠르게 방전될 수 있으므로 보조 배터리를챙긴다.
- 왕복 4시간 이상 등산을 한다면 소재의 옷보다 기능성이 강화된 등산복을 입는 것이 좋다.
-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빙판길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아이언을 챙긴다.
- 본인 쓰레기를 되가져 올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를 챙긴다.



서울 등산관광
관악산 센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 역사 내)
09:00~18:00
(휴무일 주 1회, 설날·추석 당일 휴무)
1533-2162 seoulhiking.or.kr



서울 등산관광 북악산 센터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88, 1층
09:00~18:00 (매주 화요일, 설날·추석 당일 휴무)
1533-2158 seoulhiking.or.kr



서울 등산관광 북한산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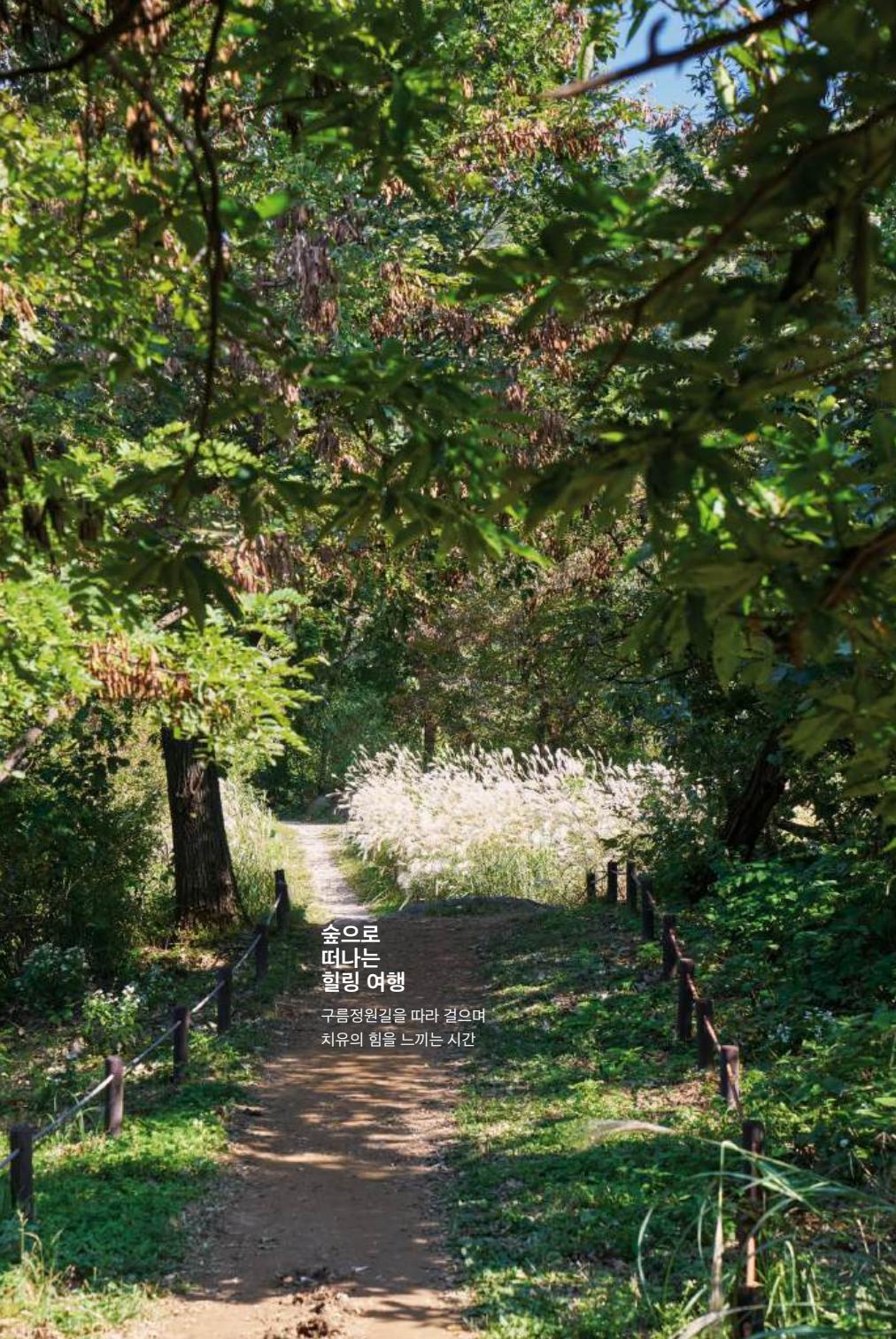
서울 강북구 삼양로 173길 52 클라비빌딩 5층
09:00~18:00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휴무)
1533-2608 seoulhiking.or.kr

북한산국립공원

도심 속에 우뚝 선 국립공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품은 북한산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우거진 수림과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이로운 절경을
만나고 싶다면 북한산과 도봉산으로 떠나보자.





장엄한 산이 선사하는 감동

“북한산은 산세가 험하지만 특유의 장엄함에
마음을 빼앗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산입니다.
특히 인수봉은 여러 암벽등반가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하죠. 북한산과 도봉산은 둘 다
거미줄처럼 많은 산행길과 다양한 난이도의 능선이
있어 체력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 김우선(백두대간인문학연구소 소장)



© 정종원

북한산은 서울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으로 200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의 도읍지를 고민하던 비류와 온조가 북한산에 올라 살만한 곳을 찾아보았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6세기 중반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고 고려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승가사, 진관사 등의 절이 모두 북한산에 자리해 있다. 또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을 이어주는 조선 건국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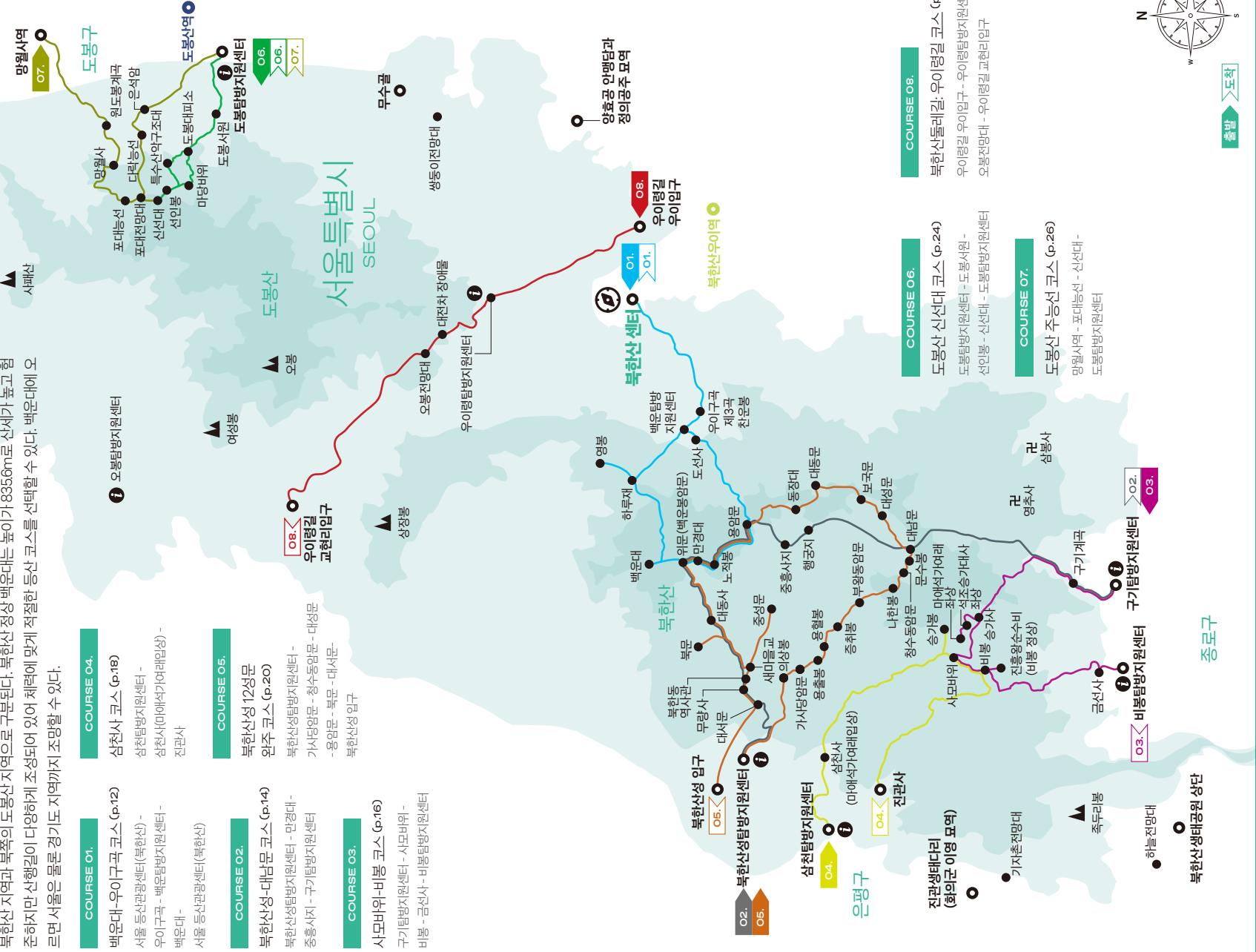
높이 835.6m에 공원 전체가 도시를 둘러싼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 자연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산은 도봉산과 함께 1983년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근대 산악인들이 암벽 루트를 개척한 뒤로 북한산 인수봉과 도봉산 선인봉은 암벽등반가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일반 등산객들을 위한 산행길과 능선도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체력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등산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산행 끝에 오르는 정상에서는 천혜의 조망과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백운대를 중심으로 360°를 돌면 서울 시내는 물론 경기도 일대까지 막 힘없는 절경이 펼쳐진다. 또한 인수봉과 백운대, 만경대가 만드는 삼각산의 풍광도 빼놓을 수 없다. 백운대 등산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영봉을 추천하는데, 영봉에서 바라본 삼각산의 모습만으로도 북한산의 매력에 취하기에 충분하다.

HIKING COURSE MAP

북한산국립공원 8코스 힐킹 맵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약 76922km²의 면적을 차지한다. 우이령을 기준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한 정상 백운대는 높이가 8356m로 산세가 높고 험준하지만 산행길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체력에 맞게 적절한 등산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백운대에 오르면 서울은 물론 경기도 지역까지 조망할 수 있다.



COURSE 01.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백운대-우이구곡 코스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에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다. 백운대에 오르기 전 하루재에서 영봉으로 오르는 길은 아주 가파르지만 해발 604m의 영봉 정상에 오르면 멋진 자태를 봄내고 있는 인수봉을 정면에서 마주할 수 있다. 해발 835.6m 백운대 정상에서는 360° 파노라마뷰로 서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총 이동 거리 9.98km | 총 소요 시간 4시간 20분 | 난이도 어려움 |



SPOT



① 우이구곡

영·정조 시대의 문신 이계 흥양호가 <우이동 구곡기(牛耳洞九曲記)>에서 계곡의 아름다운 장소 아홉 곳을 명명하고 설명한 것에서 유래했다. 화강암 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울퉁불퉁한 바위와 돌이 훌뿌려진 신비로운 모습이다.



② 영봉

백운탐방지원센터에서 하루재를 거쳐 우이능선과 이어지는 봉우리로 높이는 해발 604m다. 암벽등반 명소로 꼽히는 인수봉을 가장 정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 초보자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COURSE MAP

이동경로 서울 등산관광센터(북한산) → 우이구곡 제3곡 찬운봉 → 백운탐방지원센터 → 하루재 → 영봉 → 하루재 → 백운대 → 용암문 → 도선사 → 서울 등산관광센터(북한산)



③ 백운대

높이 835.6m의 북한산 최고봉으로 북쪽으로는 인수봉을, 남쪽으로는 만경대를 내려다볼 수 있다. 시야가 탁 트이다 보니 북한산의 다른 봉우리들을 굽어볼 수 있으며, 머리 위로는 맑고 청명한 하늘이, 발아래로는 서울의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하루재에서 영봉을 오르는 길은 가파르고 추락 위험 구간도 있다. 등산 스틱, 장갑 등 안전 장비를 준비하고 길을 따라 설치된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가자.
- 백운대에서 용암문으로 가려면 백운봉암문을 지나야 하는데, 100m 내려가기 전 갈림길에서 반드시 왼쪽 대동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내리막길로 직진하면 약수암으로 가는 돌길이 이어진다.

휴식 정보

- 중간에는 쉼터가 딱히 없어 하루재에서 충분히 쉬고 백운대에 오르는 게 좋다.

찾아가기

- 우이신설선 종점인 북한산우이역 2번 출구에서 서울 등산관광센터(북한산) 방향으로 5분 정도 걷는다. 북한산우이역에서 백운탐방지원센터까지는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

MORE INFO

- 서울 등산관광센터(북한산)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등산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등산화, 등산복, 등산스틱, 장갑 등 등산용품을 대여(유료)하고 있으며 휴게라운지 및 탈의실과 샤워 시설, 짐 보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서울의 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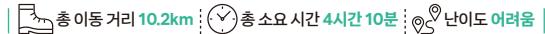
서울 등산관광센터(북한산)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3길 52 2층 / 1533-2608 / seoulhiking.or.kr



등산객이 가장 선호하는 루트

북한산성- 대남문 코스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역사 유적 탐방까지 할 수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코스이다. 북한산성의 주요 성과 행궁지 등 유적지를 지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사계절 내내 아생화가 피 예쁜 길을 만날 수 있다.



SPOT



중흥사지

노적봉 남쪽 산簏, 장군봉과 구암봉 사이에 있는
옛 중흥사 터다. 1915년 홍수로 무너진 중흥사는
현재 복원되었다. 중흥사지에는 1103년에 만든
금고(절에서 쓰는 쇠복)와 1344년에 만든
향완(불전에 향을 피우는 향로)이 유물로 남아 있다.



행궁지

조선 숙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수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성을 쌓고 내부 상원봉 아래에 임금이 임시 거처할 행궁을 만들었다. 본래의 북한산성 행궁은 1915년 산사태로 무너졌고 이후 밭굴 작업으로 행궁의 터가 드러났다.

COURSE MAP



대남문

북한산의 성문으로 북한산 내 사통팔달이
요지다. 북쪽으로는 백운대, 하루재, 영봉,
서쪽으로는 비봉, 남쪽으로는 구기계곡,
동쪽으로는 칼바위등선이 이어진다. 구기계곡에서
대남문까지만 오르고 내려가는 등산객도 많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북한동역사관에서 중성문과 용암문을 지나 만경대 쪽으로 우회하면 거리는 늘어나지만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져서 백운봉암문과 백운대까지 한결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휴식 정보

- 경사가 심한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10km 넘게 걸어야 하므로 1시간 간격으로 10분가량 쉬면서 걷기를 권한다. 대동시를 지나 약수암 쉼터에서 체력을 비축한 뒤 오르는 것이 좋다.

찾아가기

-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시내버스 704번을 타고 북한산성입구 정류장에서 내린다. 정류장에서 700m 걸으면 북한사설탑방지원센터에 닿는다.

[MORE INFO](#)

- 구기계곡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벼들치가 살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하다. 북한산국립공원 구기분소는 계곡 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계곡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COURSE 03.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산행

사모바위-비봉 코스

북한산의 맑은 계곡과 청명한 하늘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간이다. 또한 신라 진흥왕순수비가 있고 남파 무장공비인 김신조 일당의 침투로 흔적을 따라갈 수 있어 역사적 의미도 깊다. 산 정상에서는 사방으로 탁 트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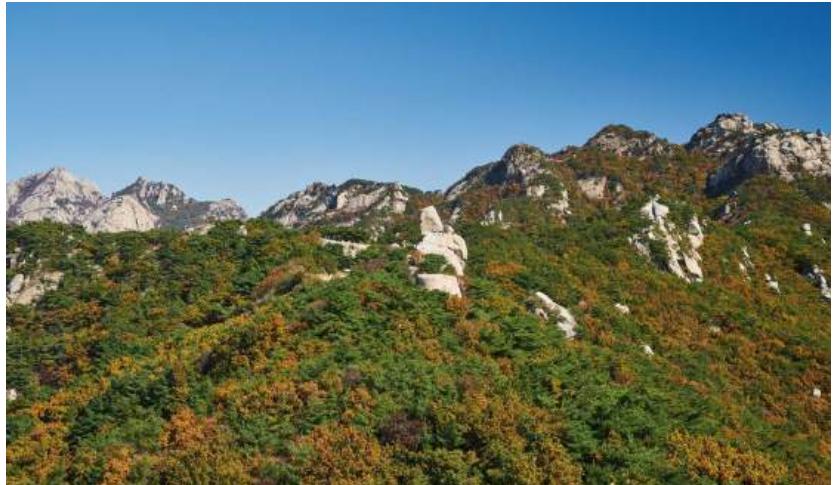
총 이동 거리 6km



총 소요 시간 3시간



남이도 보통



SPOT



승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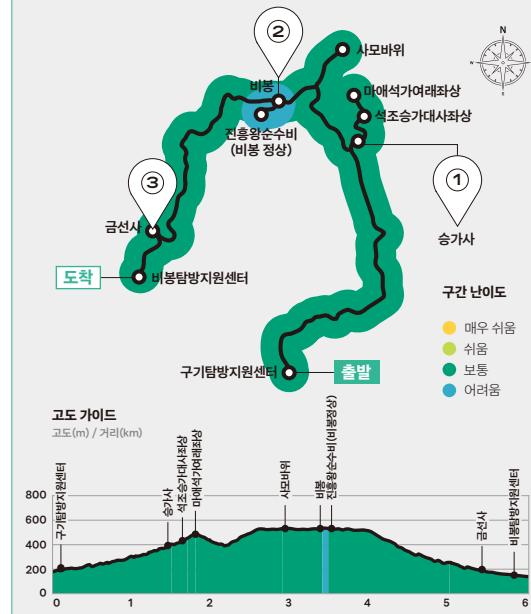
비봉

비봉에서 동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절이다. 인도의 고승인 승가대사를 기리기 위해 승가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승가대사는 640년 출생해 당나라로 건너와 53년간 불교 전교에 헌신했다.

'비석이 세워진 봉우리'라는 뜻의 비봉은 해발 560m로 백운대보다 낮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은 그에 버금간다. 비봉 정상에서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진흥왕순수비를 만날 수 있다. 실제 진흥왕순수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COURSE MAP

이동경로 구기탐방지원센터 → 승가사 → 석조승가대사좌상 → 마애석가여래좌상 → 사모바위 → 비봉 → 진흥왕순수비(비봉 정상) → 금선사 → 비봉탐방지원센터



금선사

조선 건국을 든든 무학대사가 삼각산의 정기가 서려 있는 장소를 발견하고 세운 절이 금선사다. 수령 200년이 넘은 소나무를 지나 108계단을 오르면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인 대적광전이 눈에 들어온다. 템플스테이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승가사에서 돌길을 오르다 보면 삼각 교차로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비봉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모바위다. 이때 비봉에서 사모바위로 가려면 오던 길을 한참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사모바위부터 들르고 비봉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휴식 정보

- 승가사로 가는 계곡길에는 북한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맑고 투명한 물이 고여 작은 담을 이루고 있다. 산행 중 힘이 떨 땐 물가에 앉아 쉬었다 가는 것도 좋다.

찾아가기

- 3호선 불광역 앞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7212번을 타고 승가사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그곳에서 800m가량 오르막길을 걸으면 구기탐방지원센터에 닿는다.

MORE INFO

- 신라시대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뒤 북한산을 친히 방문해 비봉 정상에 순수비를 세웠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가 1816년에 비문을 판독해 진흥왕순수비임을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진흥왕순수비는 높이 154cm, 너비 69cm 크기의 화강암 비석으로 진흥왕의 엄적과 비석을 세운 연유 등이 쓰여 있다.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사찰 기행

삼천사 코스

산행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천년 사찰로 연결되는 구간이다.
삼천사는 신라시대인 661년, 진관사는 고려시대인 1011년
창건됐다. 코스 최고봉인 승가봉의 이름 역시 봉우리 아래에 있는
승가사에서 유래했다. 산행 중 만나는 사찰에서는 잠깐의 휴식과
함께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총 이동 거리 7.33km | 총 소요 시간 2시간 40분 | 난이도 어려움 |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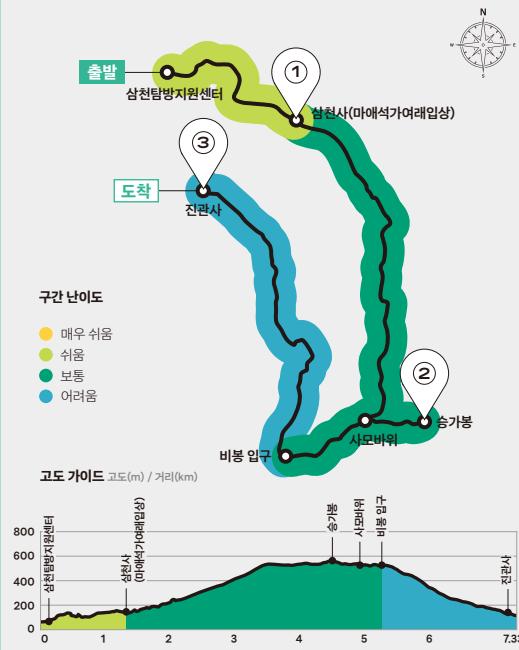


① 삼천사
② 승가봉

신라시대의 승려 원효가 661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한때 3000여 명이 수도할 만큼 번성해
삼천사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 온다. 대웅전
뒤편 병풍바위에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석가여래입상이 새겨져 있다.

비봉능선의 사모바위와 문수봉 사이에 있는 높이
567m의 봉우리다. 동쪽으로 백운대, 인수봉,
문수봉, 보현봉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사모바위와 비봉을 내려다볼 수 있다. 승가봉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좋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

이동경로 삼천사방지원센터 → 삼천사(마애석가여래입상) →
승가봉 → 사모바위 → 비봉 입구 → 진관사



③ 진관사

고려 8대 임금 현종이 1011년에 지은 천년
고찰이다. 동쪽 불암사, 남쪽 삼막사, 북쪽 승가사,
서쪽 진관사가 서울 근교 4대 명찰로 꼽힌다. 계호
주지스님의 연구로 탄생한 진관사의 사찰 음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하이킹 정보

- 사모바위에서 진관사 방향 하산로는 경사가 심해 핸드레이이나 쇠줄을 잡고 내려야 한다. 등산 장갑을 끼고 내려가기를 권한다.
- 진관사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곳곳에 낭떠러지가 있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휴식 정보

- 삼천사 마애석가여래입상 앞 판석에 앉아 쉬거나 진관사 내 사찰 찻집에 앉아 전통차를 음미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찾아가기

-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로 나와 시내버스 7723번을 타고 7개 정류장을 이동해 하나고-삼천사-진관사입구 정류장에서 내린다. 삼천사 방향으로 9분가량 걸으면 삼천사방지원센터에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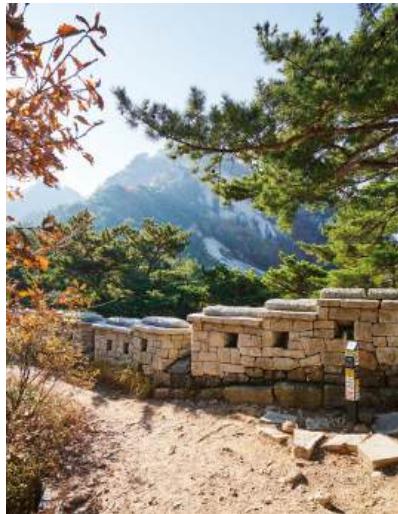
MORE INFO

- 진관사는 한국 산사 음식의 전통을 이어가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먹는 것 역시 수행이라는 생각으로 발우공양 텁풀스테이를 진행한다. 진관사의 사찰 음식을 맛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 외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다.



북한산 최고의 풍광이 펼쳐지는 곳

북한산성 12성문 완주 코스



북한산성은 조선 숙종 37년(1711)에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산의 험한 자연 지형을 활용해 축성되었는데 길이가 약 11.6km에 달한다. 북한산성 12개 성문 코스는 5개의 대문(대동문, 대성문, 대남문, 대서문, 북문)과 7개의 암문(서, 백운봉, 용암, 보국, 청수동, 부왕동, 가사당)을 종주하는 코스다. 이 구간은 북한산의 공룡능선이라 불리는 의상능선(의상봉, 용출봉, 용혈봉, 증취봉, 나한봉, 문수봉)을 타야 한다. 최고난도를 자랑하는 산행길이지만 정상에서는 능선 좌우로 펼쳐진 북한산 최고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SPOT



부왕동암문

숙종 37년 북한산성을 축조하며 설치한 암문 중 하나로, 삼천사에서 중흥사에 이르는 길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했다. 암문은 비상시에 병기나 식량을 반입하는 통로이자 구원병의 출입으로 활용됐다.



문수봉

의상능선 끝에 있는 봉우리로 고려시대에 문수사가 봉우리 아래 지어져 문수봉이라 불렸다. 청수동암문에서 의상능선, 산성주능선, 비봉능선이 만난다. 봉우리 정상의 두꺼비 모양 바위에 앉아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대성문

북한산성의 동남쪽에 있는 성문으로 산성이 축성된 1711년에 지어졌다. 당시 창덕궁에서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통로 역할을 했다. 성문 상부 문루의 기둥과 기와지붕 등이 부식된 것을 보수하여 2018년 다시 개방했다.

COURSE MAP

이동경로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 의상봉 → 가사당암문(1문) → 용출봉 → 용혈봉 → 증취봉 → 부왕동암문(2문) → 나한봉 → 청수동암문(3문) → 문수봉 → 대남문(4문) → 대성문(5문) → 보국문(6문) → 대동문(7문) → 동장대 → 용암문(8문) → 노적봉 옆길 → 백운봉암문 → 대동사 → 북문(10문) → 새마을교 → 중성문(11문) → 대서문(12문) → 북한산성 입구



SPOT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북한산 주능선에 있는 문수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의상능선은 경사가 심하고 곳곳에 위험한 곳이 있어 등산 초보자에게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 백운봉암문에서 대동대를 넘어 원효봉을 거쳐 북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장비를 갖추고 암벽등반을 해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코스다. 일반 등산객은 대동사 방향으로 전후로 보국문에서 용암문 구간은 성벽 살짝 아래에 조성된 흙길과 숲길을 걷는 재미가 있다. 동장대에서 지친 다리도 쉴 겸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찾아가기

-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로 나와 간선버스 704번을 타고 북한산성입구 정류장에서 내려 대서문 쪽으로 900m가량 걷다 보면 오른쪽에 의상봉 방향으로 가는 샛길이 나오는데 이 길이 의상능선으로 이어진다.

MORE INFO

- 북한산성의 정문으로 성문 16곳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한다. 1712년 숙종이 북한산성에 행차했을 때 이곳을 통해 성내로 들어갔다. 과거 성내에 마을이 있었을 당시에는 주민들이 대대로 이용한 성문이기도 하다.

COURSE 06.

아침을 여는
일출 명소

도봉산 신선대 코스

도봉산의 최고봉은 자운봉(740.2m)이지만,
깎아지르는 암벽인 탓에 산행은 금하고 있다. 대신 맞은편에 있는
신선대가 도봉산의 정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코스는 신선대까지
오르는 가장 짧은 거리로, 여명으로붉게 물든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일출 명소로 유명하다.

총 이동 거리 6.3km | 총 소요 시간 2시간 30분 | 날씨도 어려움 |



SPOT



① 도봉서원

서울에 있는 유일한 서원으로 조선 성리학자 조광조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1573년 창건했다. 우암 송시열과 정암 조광조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흥선대원군이 1871년 서원철폐령을 내려 훼철됐다가 1971년에 복원됐다.

자운봉 맞은편에 있는 봉우리다. 정상에 오르면 도봉산의 풍광과 함께 바위 사이로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들어온다. 신선대로 가기 위해서는 핸드레이를 잡고 올라가야 한다. 많은 등산객이 일출을 보기 위해 신선대를 찾는다.

COURSE MAP

이동경로 도봉탐방지원센터 → 도봉서원 → 도봉대피소 →
마당비위 → 선인봉 옆길 → 신선대 → 선인봉 옆길 → 특수산악구조대 →
도봉대피소 → 도봉서원 → 도봉탐방지원센터



③ 선인봉

해발 708m의 화강암 봉우리로 암벽 높이는 200m, 너비는 500m가량 된다. 자운봉, 만장봉과 더불어 삼형제 봉우리로 불린다. 신선이 도를 닦는 바위라 하여 선인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선인봉에 오르려면 암벽등반 장비를 갖춰야 한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선인쉼터부터 신선대까지는 오르막길로 경사가 매우 심한 편이다. 무릎이나 발목이 악한 사람과 노약자 등은 주의해야 한다.
-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선대 정상을 50m 앞두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선대 등반을 원한다면 주중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휴식 정보

- 신선대 정상을 오르기 전 선인쉼터에서 충분히 쉬었다 올라가는 것이 좋다. 정상까지는 기파른 암벽을 타야 하므로 체력 소모가 심하다.

찾아가기

- 1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봉산역교차로 방향으로 20분가량 걸으면 도봉탐방지원센터에 닿는다.

MORE INFO

- 도봉산의 최고봉인 자운봉을 비롯해 만장봉, 선인봉, 주봉, 오봉, 우이암 등은 암벽등반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 도봉대피소는 원래 도봉산장으로 불렸던 곳으로 1970년대 전국에 지어진 35개 산장 중 하나다. 같은 시기에 지어진 산장 중 유일하게 민간인이 거주하며 등산객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는 등산학교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COURSE 07.

능선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비경 속으로

도봉산 주능선 코스

도봉산 주능선은 우이 남능선과 우이암을 지나 주봉을 경유해 신선대로 이어진다. 포대능선과 사파능선을 모두 합한 길이는 약 11km에 달한다. 비교적 고난도인 편인데 힘들이지 않고 오르다가 망월사부터 갈수록 경사가 심해진다. 하지만 능선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 아래로 산과 계곡의 아름다운 비경이 펼쳐진다.

| 총 이동 거리 9.32km | 총 소요 시간 6시간 | 난이도 어려움 |



SPOT



① 원도봉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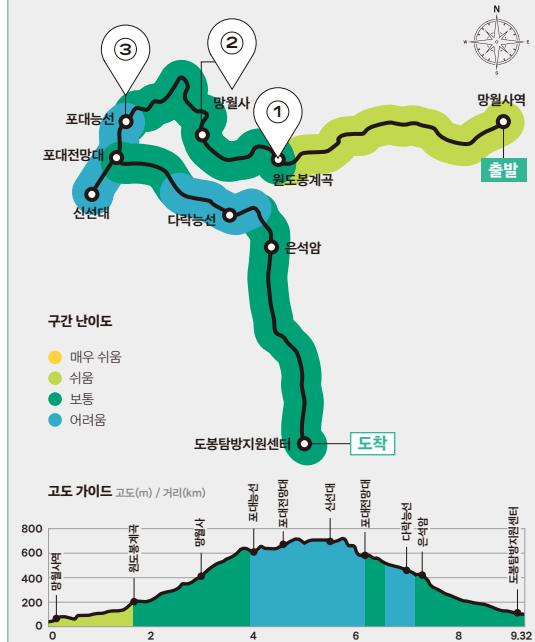
② 망월사

원조 도봉산이라는 뜻으로 망월사계곡이라고도 불린다. 원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쌍용사, 덕제샘, 망월사를 지나 자운봉에 이르는 계곡을 일컫는다. 쌍용사와 덕제샘 사이에는 바위가 튀어나온 암벽이 두꺼비 머리를 닮은 ‘두꺼비바위’가 있다.

신라 639년 해호스님이 선덕여왕의 명으로 왕실의 융성을 위해 창건했다. 대웅전 동쪽에는 토끼 모양의 바위가, 남쪽에는 달 모양의 월봉이 있어 마치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모습이라 하여 망월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COURSE MAP

이동경로 망월사역 → 원도봉계곡 → 망월사 → 포대능선 → 포대전망대
→ 신선대 → 포대전망대 → 다향능선 → 은석암 → 도봉탐방지원센터



③ 포대능선

도봉산의 주봉인 자운봉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능선이다. 6.25전쟁 이후 능선 중간에 대공포 진지인 포대가 주둔하여 포대능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북쪽으로는 원도봉계곡, 남쪽으로는 도봉계곡과 오봉능선으로 연결된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포대전망대에서 다향능선으로 빠지는 길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포대전망대 앞에서 왼쪽 샛길로 빠져내려오다 데크 길 초기에서 왼쪽으로 들어 핸드레일을 잡고 바위를 돌아 나가야 한다.

휴식 정보

- 체력 소모가 심한 코스이므로 시간을 적당히 안배하여 쉬면서 산행하는 것이 좋다.

찾아가기

- 1호선 망월사역 3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 길로 20분가량 걸으면 원도봉탐방지원센터에 도착, 원도봉계곡으로 갈 수 있다.

MORE INFO

-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려 하자 아들 마의태자는 1000년 사직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신변의 위험을 느끼자 마의태자는 도봉산 망월사로 숨어들었고 경순왕이 끝내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자 마의태자는 통곡하며 개골산으로 들어가 바위에 집을 짓고 초식으로 연명하다 생을 마감했다.
- 세계 최초 16좌 완등에 성공한 엄홍길 대장은 산악인으로서의 꿈을 도봉산에서 키웠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원도봉계곡에 있는 두꺼비바위에 올라 전문 산악인들에게 암벽등반을 배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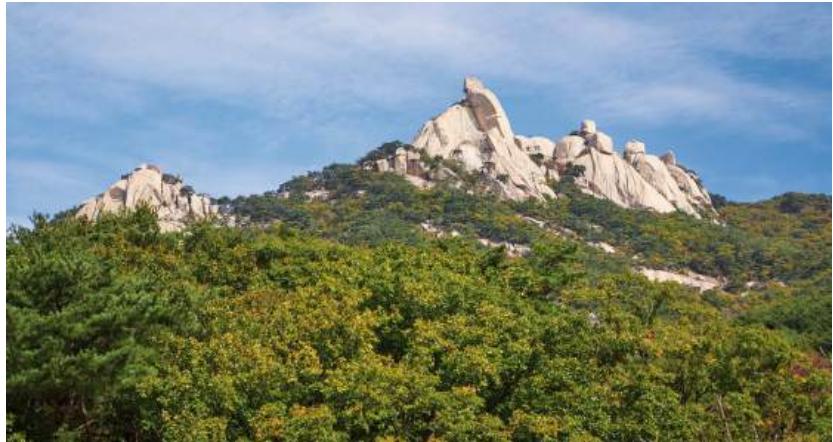
COURSE 08.

자연 친화적인 산책 코스

북한산 둘레길: 우이령길 코스

남쪽으로 북한산, 북쪽으로 도봉산 사이 비포장길을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북한산둘레길 21구간이다.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가 2009년 7월부터 예약제로 개방됐다. 40년 넘게 등산객의 발길이 달지 않아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가파른 구간이 없어 산책하듯 걸을 수 있다.

총 이동 거리 6.42km | 총 소요 시간 2시간 | 날이도 쉬움



SPOT



① 우이령탐방지원센터



② 대전차 장애물

우이령길 산행의 시작점이 되는 곳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 이후 2009년 7월부터 예약제로 탐방이 가능하다.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원 확인 후 입장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reservation.knps.or.kr ☎ 예약안내 1670-9201)

대전차 장애물은 유사시 받침대에 올려놓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떨어뜨려 적의 전차 진입을 저지하는 군사시설이다. 우이령길은 6.25전쟁 이후에 미군 공병대가 작전도로로 개통했고 양주와 파주 지역 주민들의 피난길이자 서울 니들길로 이용되기도 했다.

COURSE MAP

이동경로 우이령길 우이입구 → 우이령탐방지원센터 → 대전차 장애물 → 오봉전망대 → 우이령길 교현리입구



③ 오봉전망대

우이령길의 정상이자 우이령길 구간에서 가장 수려한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해발 660m의 산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기묘한 5개의 암봉을 마주할 수 있다. 오형제 봉우리 또는 다섯손가락 봉우리라고 불린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우이령길은 탐방 하루 전날까지 예약한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산할 수 있고 오후 6시까지는 나와야 한다. 겨울철에는 오후 3시 이후로는 입산이 불가하다. 탐방지원센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꼭 지참하자.

휴식 정보

- 우이령길에는 중간 쉼터가 여럿 있는데 있어 휴식은 물론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찾아가기

- 우이산설선 북한산우이 1번 출구에서 우이령숲속문화마을 방향으로 약 2km 가량 걸어올라가면 우이령길 본격 시작되는 우이령탐방지원센터가 나온다.

MORE INFO

- 소귀고개로 불리던 우이령길은 수도권과 경기도 북부를 잇는 지름길로 예부터 농산물과 생필품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다. 6.25전쟁 때는 피난길로 활용됐고 휴전 뒤로는 군사작전 도로로 사용되었다. 기술 단풍명소로 유명하다.
- 오봉에 얹힌 유래가 있다. 고을의 원님 슬하에는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는데 한 마을 총각 다섯 명이 그녀에게 장가들기 위해 힘 자랑을 벌인 것. 오봉과 마주한 뒤편 능선에 올라 바위를 던져 옮리는 시합을 했고 그들이 던진 바윗덩어리들이 산꼭대기에 떨어져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자연과 도심을 오가는 여행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템플스테이



화계사

수유동의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면 만날 수 있는 화계사는 1522년에 신월선사가 창건한 절이다. 시내에서 조금만 들어왔을 뿐인데 이곳이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어 몽환적인 느낌마저 듦다. 화계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머물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템플스테이는 예불과 티종 체험, 스님과 나누는 차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말에 진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주중(화)에 진행하는 휴식형 프로그램이 있다.

📍 서울 강북구 화계사길 117 ☎ 010-4024-4326

금선사

북한산 비봉 코스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청와대가 위치한 북악산과 인왕산이 보이는 곳에 절이 하나 서 있다. 바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임금의 스승)인 무학대사 자초가 세운 금선사다. 특별한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과 어우러진 사찰의 풍경을 벗삼아 볼심을 느끼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걸음 하나하나에 호흡을 집중하며 쌓인 스트레스와 번뇌를 내려놓으면 마음에 평안함이깃든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주말(금, 토)에는 체험형, 주중(화, 수, 목)에는 휴식형으로 진행된다.

📍 서울 종로구 비봉길 137 ☎ 02-395-9955



진관사

진관사는 1011년 고려 8대 임금인 현종 때 세워진 천년 고찰로 부처의 가르침 아래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돼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사찰 음식으로 이름난 진관사에서는 발우공양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음식이 사람의 몸과 인격을 만든다고 생각하며 만든 건강한 사찰 음식을 맛본 뒤에는 스님과의 차담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진관사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하는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봄도 좋겠다.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서울 은평구 진관길 73 ☎ 02-388-7999

북한산 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들



419카페거리

북한산둘레길을 걸은 뒤 잠시 머물기 좋은 419카페거리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물론 개성이 돋보이는 카페가 모여 있는 이곳은 국립4.19민주묘지 입구부터 근현대사기념관까지 이어지는 길에 조성되어 있어 419카페거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무엇보다 1960년 4월 19일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 북한산 등반 후 들러보길 추천한다. 걷다 보면 중간중간 순국선열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관람 후 향긋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겨보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 535-221



선운각

서울 등산관광센터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실외에 조성된 암벽 체험장을 만날 수 있다. 암벽등반을 안전하게 체험하고 싶은 하이커들을 위한 공간으로 1회 체험은 물론 월 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실내 암벽이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클라이밍 할 수 있으며 실외 벽 높이는 15m, 실내 벽은 12m 규모로 전문 암벽등반객들이 연습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센터 지하에는 사워실이 있어 암벽 체험 후 훌린 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 서울 강북구 삼양로173길 80 ☎ 070-4167-7468

○화~금요일 09:30~21:20 토~일요일 09:30~17:2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선운각

북한산의 옛 모습을 상상하고 싶다면 우이동에 위치한 한옥 카페 선운각에 들러보자. 1967년 건축되어 고급 요정으로 이용되었던 선운각은 카페뿐만 아니라 웨딩 및 촬영 대관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서울에서 가장 큰 민간 한옥으로 들판과 마당 등이 잘 관리되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대관, 웨딩 행사 시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화나 인스타그램(@cafe_sunwoongak)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 서울 강북구 삼양로173길 223 ☎ 0507-1399-1105
○ 11:00~19:00, 매주 수요일 휴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은평의 역사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유산인 한옥의 건축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옥상 전망대에서는 북한산과 어우러진 은평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 내부에는 체험학습실, 작은 도서관, 히망 장난감 도서관 등의 부대시설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다.

■ 서울 은평구 연서로50길 8 ☎ 02-351-8556
○ 09: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휴관



우이동산악문화H-U·B

우이동산악문화H-U·B는 다양한 산악 체험과 산악 문화, 커뮤니티가 결합된 산악문화복합공간이다. 세계 최초 힐랄라야 16좌 등반에 성공한 엄홍길 대장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산악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악체험관에서는 등산에 필요한 의류 착용법과 코스에 따른 신발 활용법 등 등산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고,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인수봉 도전게임과 VR체험 등이 운영된다.

■ 서울 강북구 삼양로 689-1 지하 2층 ☎ 02-994-8848
○ 10:00~18:00(12:00~13:00 휴식시간, VR 체험관 17:30까지 운영),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휴무



청자가마터 체험장

북한산 자락에는 전통 도자기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청자가마터 체험장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와 조선 번역기애 이루어진 도자기 생산체계 파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유적이다. 이곳에서는 물레 체험과 핸드빌딩, 페인팅 작업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등산을 마친 뒤 체험장을 방문하면 산행의 여운 속에서 흙을 빚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 02-997-9997
○ 수~일요일 운영, 명절 연휴, 1월 1일, 5월 1일 휴관

자연의 건강함과 정성을 담은 북한산 로컬 맛집



우리콩순두부

등산을 했다면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울 차례다. 따끈한 두부 요리는 등산 후 체력을 보충해 줄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다.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등산으로 비워진 속을 편안하게 채워준다. 서울 등산관광센터(북한산) 옆 건물에 있는 우리콩순두부는 파주장단콩으로 만든 다양한 두부 요리를 내놓는다. 깔끔하고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순두부 정식과 콩비지, 김치비지가 대표 메뉴다. 막걸리와 함께 먹을 메뉴를 찾는다면 두부부침을 추천한다.

▣ 서울 강북구 삼양로173길 46 ☎ 02-995-5918 ☺ 09:30-19:00



엘림들깨수제비칼국수

평소 면요리를 좋아한다면 엘림들깨수제비칼국수에 들러보자. 매일 아침에 볶은 들깨가 들어가 담백한 칼국수를 맛볼 수 있다. 메뉴는 들깨칼국수와 수육, 만두 세 가지로 심플하지만 그 맛의 깊이는 남다르다. 평일 오픈 시간에도 웨이팅이 생길 만큼 동네의 물론 북한산을 방문한 관광객들로 가게가 늘 가득 차 있다. 칼국수를 시키면 보리밥과 맛보기 수육이 함께 나오며, 주인장의 낙낙한 인상에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칠 수 있는 곳이다.

▣ 서울 강북구 우이천로 483 1층 ☎ 010-4321-1818
☺ 월~금요일 12:00~18:30, 토·일요일 휴무



스푼앤포크카친

우이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달콤한 냄새에 절로 걸음을 멈추게 되는 동네 명소가 있다. 쌱뚱동 골목에 자리한 스푼앤포크카친은 동화 속 작은 빵집처럼 산행의 피로를 달콤하게 녹여주는 곳이다. 주인장이 매일 아침 직접 반죽해 구운 식빵과 베이글, 스콘, 달달한 쿠키류는 산행 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더없이 좋다. 빵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기본에 충실히 메뉴로 구성돼 있고, 특히 식빵 종류가 다양해 오픈판하는 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풍미가 진한 치즈포카치야와 크루번도 인기 메뉴다.

▣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483 1층 ☎ 010-4321-1818
☺ 월~금요일 12:00~18:30, 토·일요일 휴무

잠시 잊고 있던 여유를 찾아 머무는 시간



우이동 가족캠핑장

북한산의 화려한 산세를 감상하며 머물 수 있는 캠핑장이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뿐만 아니라 침대와 냉장고, 화로대, 각종 조리 도구가 비치된 글램핑 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의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다. 캠핑장 내에는 매점과 세척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매월 10일 오후 2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일반 캠핑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해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8 ☎ 02-944-2941
☺ 체크인 14:00, 체크아웃 11:00, 토요일 휴장



파라스파 서울

등산 후 노곤한 몸을 달래줄 힐링 스테이 파라스파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리조트로 물청한 소나무 숲 사이에 지어져 잠시 도심을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 객실은 자연과 어우러진 모던 우드 스타일로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리조트 내에는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등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며, 시간이 된다면 파노라마 정원으로 산책을 다녀오길 추천한다. 인수봉을 비롯한 북한산의 수려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 서울 강북구 삼양로 689 ☎ 02-3408-5000
☺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북한산을 지키는 봄의 전령사

서울시의 허파와도 같은 북한산에는 자그마치 3천여 종에 달하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식물은 635종에 이른다. 따뜻한 봄날이 되면

이곳을 지키는 봄의 전령사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많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글. 김진옥(서대문자연사박물관 학예사) 일러스트. 이소영(식물세밀화가)



북한산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국립공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약 76.922km²의 면적을 차지한다.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봉우리와 그 사이로 형성된 계곡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북한산에는 635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북한산의 식물들은 이른 봄부터 꽃을 피우며 일찌감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린다.

생강나무

북한산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꽃 중 하나는 바로 노란 생강나무 꽃이다. 3월이 되면 생강나무는 북한산 곳곳에서 잎보다 먼저 자그마한 꽃들을 옹기종기 피워내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린다. 나뭇가지와 잎을 비비면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생강나무는 가지를 잘라 물에 우려면 향긋한 차로 즐길 수 있다. 이때 노란색의 꽃을 말려 함께 넣으면 은은한 향이 나는 차가 된다. 또 9월이 되면 검게 익는 생강나무의 열매에서도 알싸한 향이 난다. 이 열매에서 짠 기름은 예로부터 남쪽 지방의 동백기름과 함께 여인들의 머릿기름으로 유명했다.

서울제비꽃

생강나무 꽃이 만개할 때쯤 북한산의 양지바른 땅에서는 보라색의 서울제비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줄기 없이 뿌리에서 여러 개의 잎과 꽃이 피는 서울제비꽃은 이른 봄부터 돌아나는 만큼 잎과 꽃자루에 짧은 털이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기 지역에만 서식하는 식물로 서울에서 처음 발견되어 1918년에 신종으로 발표되었다. 제비꽃이라는 이름은 추운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갔던 제비가 봄이 되어 돌아올 때쯤 피어난다고 하여 붙여졌다.

북한산에는 서울제비꽃 외에도 노랑제비꽃과 남산제비꽃, 고깔제비꽃 등의 다양한 제비꽃이 핀다.



학명 *Viola seoulensis* Nakai
생태 별이 잘 드는 들판에 자라는 여리해살이풀
개화 4~5월



학명 *Weigela florida* (Bunge) A.DC
생태 숲이나 계곡 주변
양지바른 곳에 자라는 낙엽 관목
개화 5~6월

붉은병꽃나무

봄이 무르익는 5월이 되면 북한산 계곡 주변을 비롯한 능선의 암석지에 붉은병꽃나무가 꽃을 피운다. 이 나무는 호리병을 닮은 꽃봉오리를 가지고 있는 병꽃나무에 비해 더 붉은색의 꽃을 피운다고 하여 붉은병꽃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노란색으로 피어난 꽃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병꽃나무와 다르게 붉은병꽃나무는 처음부터 붉은색 꽃을 피운다. 붉은병꽃나무의 꽃봉오리가 터지듯 벌어지면 다섯 갈래로 갈라진 붉은색 꽃이 녹색의 잎과 대비되어 5월의 북한산을 찾는 이들의 시선을 끌고 한다.

인왕산

서울을 한눈에 조망하며 걷는 산길

인왕산은 완만한 지형이라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서울 도심을 한 폭의 그림처럼 감상하고, 산행 후에는 예쁜 카페에서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등산 여행지다.





화폭에 담긴 계곡

겸재 정선의 『장동팔경첩』에 담긴
아름다운 수성동계곡

문학으로 읽는 역사

시대의 아픔을
시로 표현한 윤동주의
삶과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윤동주문학관

윤동주문학관



서촌과 인왕산을 사랑한 화백의 공간

화백의 예술魂이 담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박노수미술관



자연과 빌딩 숲의 아름다운 공존

인왕산의 인왕(仁王)은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조선왕조를 수호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 “인왕산을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호랑이가 많은 산으로도 유명했다. 조선 초 궁궐을 조성할 때 인왕산을 우백호(右白虎)로 삼아 이곳에 성곽을 쌓아 올렸는데, 덕분에 산을 오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성곽의 자태를 볼 수 있다.

인왕산은 고도 338.2m로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산은 겹산의 멋이 있는 데 반해 인왕산은 단독으로 우뚝 솟은 것이 특징이다. 보통 3시간이면 종주가 가능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곳은 조선 문인들이 모여 문화를 즐기던 교류의 장이자 불교와 무속의 성지였다. 특히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인왕체색도>는 비안개가 걷힌 인왕산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등산 중 수성동을 지날 때는 마치 겸재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화창한 날 푸른 하늘을 벗삼아 인왕산 정상에 오르면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부터 건너편 북한산까지 빌딩 숲과 자연이 어우러진 진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담아 갈 수 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인왕산은 더욱 신비로운 매력을 뿐낸다. 사직공원에서 인왕산 정상까지 이어진 한양도성은 밤이면 조명을 받아 ‘서울의 밤’을 기록하기에 더없이 좋은 포토존이 된다.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걸으며 인왕산의 빼어난 면면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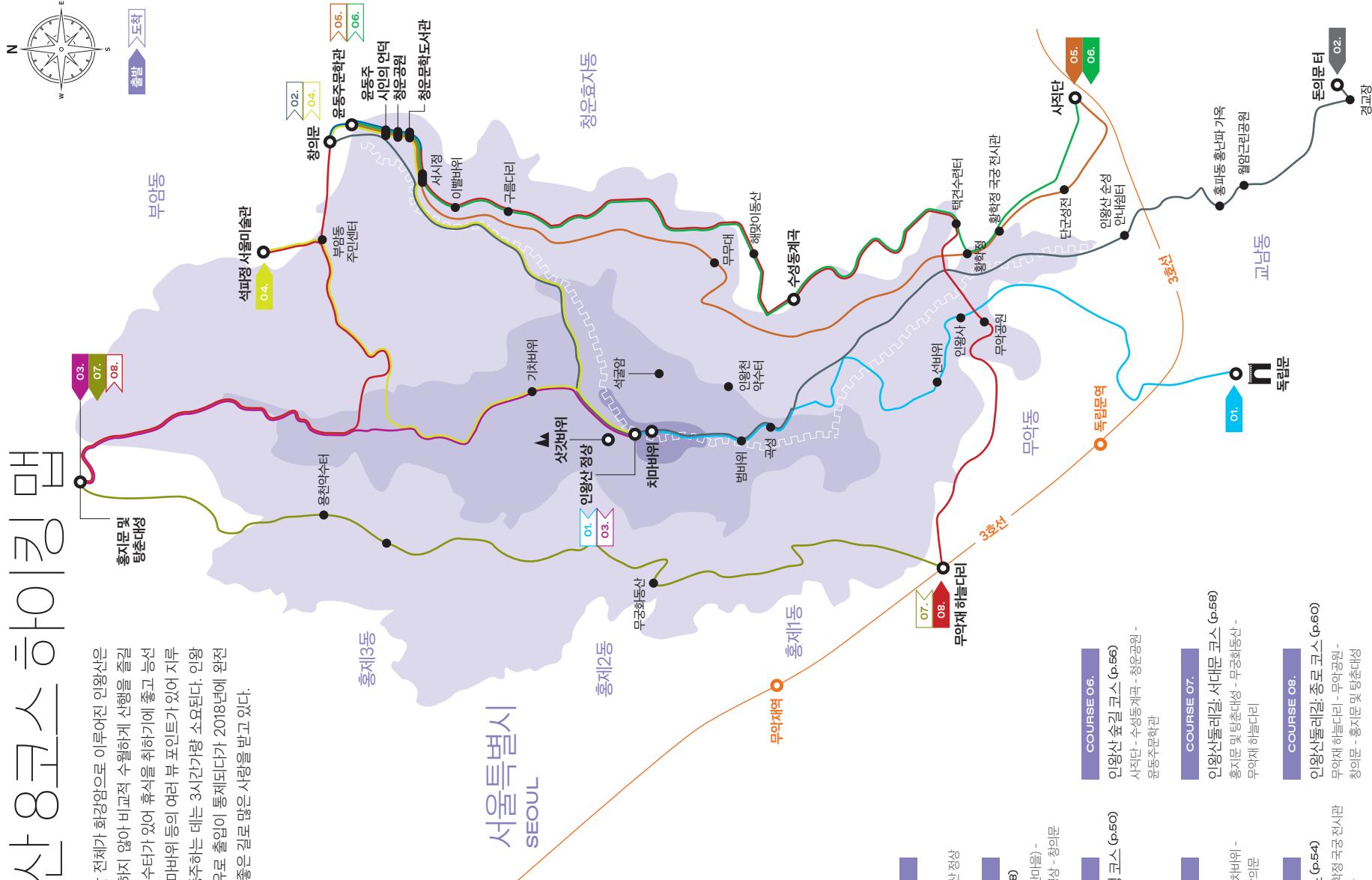
“고도가 높지 않은 인왕산은 여유로운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산입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종교 키워드를 따라가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인근에 자리한 서촌과 북촌, 익선동의 예쁜 카페와 맛집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인왕산 산행의 매력입니다.”

-김미현(여행 에디터)

HIKING COURSE MAP

한국서예 800년

높이 338.2m에 산 전체가 흙암으로 이루어진 인왕산은 산세가 높거나 험하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 곳곳에 약수터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좋고 능선을 따라 별바위, 치마바위 등의 여러 뷰 포인트가 있어 지루하지 않다. 산을 종주하는 데는 3시간량 소요된다. 인왕산은 군사성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다가 2018년에 완전히 개방되어 후걸기 좋은 경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기암괴석의 비경을 벗 삼는

선바위 코스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왕산의 대표 바위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유명 코스이다. 선바위와 범바위, 해골바위, 삿갓바위 등에 직접 오를 수 있다. 편도 1시간가량 걸리는 산행이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도심 경관이 장관이다.

총 이동 거리 1.84km

총 소요 시간 1시간 10분

난이도 보통



SPOT



독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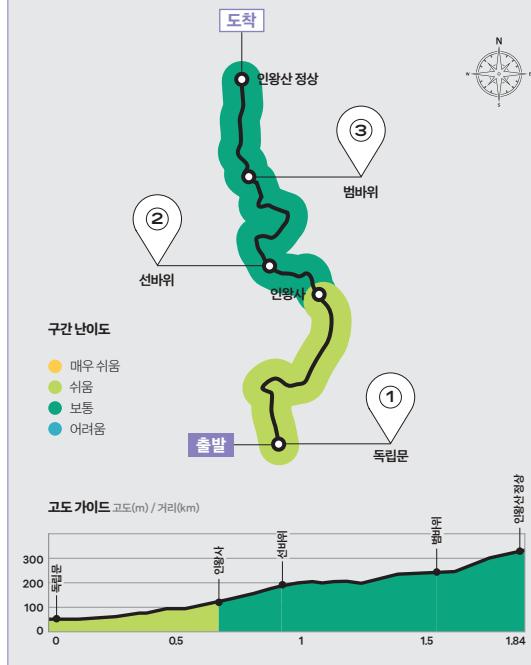


선바위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1896년부터 1897년에 걸쳐 독립협회에서 세운 기념문. 독립운동가 서재필이 프랑스의 개선문 사진을 보고 모양새를 본떠 독립문의 설계도를 그렸고, 국민들이 낸 성금을 재원으로 세워졌다.

인왕산 서쪽 기슭에 있는 바위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인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여 '기자암'으로 불린다. 바위 모양이 마치 스님이 장삼(소매가 긴 걸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 참선한다는 '선(禪)'자를 따서 선바위라고도 한다.

이동경로 독립문 → 인왕사 → 선바위 → 범바위 → 인왕산 정상



범바위

큰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과 같아서 범바위라 불린다. 짹을 잃은 수컷 호랑이가 슬픔에 울부짖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죽은 사연을 품고 있다. 범바위에 오르면 바람소리가 마치 슬픔에 빠진 호랑이의 울부짖음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하이킹 정보

- 범바위가 일출과 일몰 명소로 알려져 있어 정상까지 가지 않고 범바위에서 머물다 가기도 한다. 다만 범바위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등산로가 좁으니 부상에 유의할 것.
- 인왕사 일주문까지는 오르막길이라 숨이 찰 수 있지만, 이후로는 등산로가 이어져 자연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다. 선바위를 지나 본격적으로 등산로를 따라가 보면 해골바위와 모자바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휴식 정보

- 정상 전까지 인왕사 옆에 있는 회장실이 유일하다. 범바위를 비롯해 성곽 주변은 쉬었다 가기 좋다.

찾아가기

-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2번 출구로 나와 무악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걷는다.

MORE INFO

- 선바위로 오르는 계단 양옆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 강렬한 색상으로 표현된 인왕산 호랑이 그림 등과 함께 멋진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오래된 서울을 만나는

한양도성 코스

'보이지 않는 문'으로 남은 도성의 서대문에서 출발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장소인 경교장을 거쳐 성곽길을 따라
창의문에 이르는 길이다. 1968년 남북 교전 사건 이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다가 1993년 일반인에게 개방됐는데,
옛 조선의 한양을 회상하게 한다.

총 이동 거리 4.1km

총 소요 시간 2시간 10분

난이도 보통



SPOT



① 월암근린공원



② 경교장

한양도성길과 연결되는 월암근린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2011년 서울시가
복원한 140m의 성벽은 조선 시대 성벽 건축의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의 숙소이자 환국
후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다. 국무회의 개최 및
반탁운동과 광복 후 혼란 정국을 수습하는 등 역사적
무대가 되었다. 백범 서거 후 외국 대사관저, 미군 시설,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전시관으로 개관하였다.

이동경로 돈의문 터(돈의문박물관마을) → 경교장 → 월암근린공원 →
홍파동 홍난파 가옥 → 인왕산 순성안내쉼터 → 곡성 → 범바위
→ 인왕산 정상 → 윤동주 시인의 언덕 → 창의문



③ 홍파동 홍난파 가옥

1930년 독일 선교사가 지은 서양식 근대 가옥으로
동요 <고향의 봄>을 작곡한 홍난파가 이곳에서
6년간 생활하며 말년을 보냈다. 가옥 앞에는
홍난파의 흉상과 선생을 기리는 비문이 있다.
평일 11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한다.

하이킹 정보

- 인왕산 순성안내쉼터에서 오르다 보면 갈림길이 나온다. 왼편으로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나오고, 오른편으로는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방향이다. 정상으로 가려면 곧바로 직진해 언덕을 올라야 한다.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은 바위 사이를 타고 올라가야 하므로 부상에 주의하자.
- 인왕산은 바위 구간이 많으므로 경등산화를 신어 발목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휴식 정보

- 인왕산 순성안내쉼터 앞에 편의점이 있다. 정상에서 창의문으로 향하는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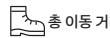
찾아가기

-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돈의문 터가 있다. 강북삼성병원 방향으로 걸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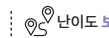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왕산 제일의 절경

홍지문 및 탕춘대성 코스

홍지문에서 탕춘대성을 따라가는 길은
인왕산 코스 중 비교적 등산객들의 발길이 한산한 곳이다.
그래서 더욱 홍보가 적어 북악산과 북한산을 비롯해
서울의 전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기차바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에 저절로 걸음이 멈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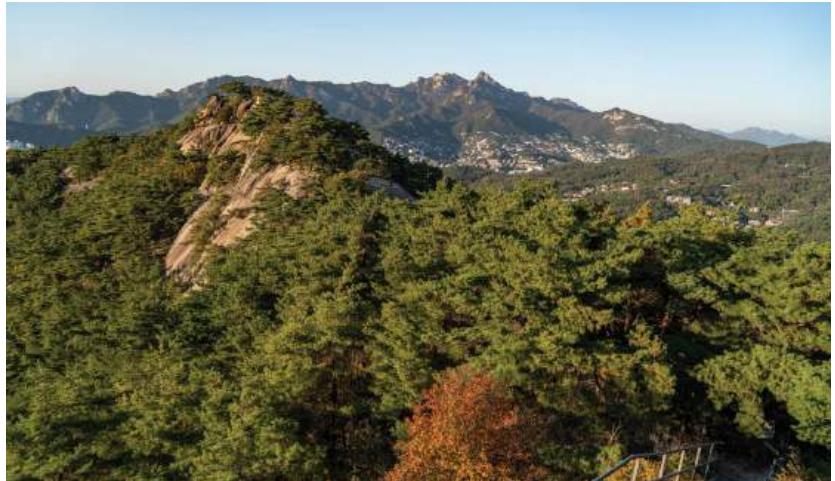
총 이동 거리 2km



총 소요 시간 1시간 20분



난이도 보통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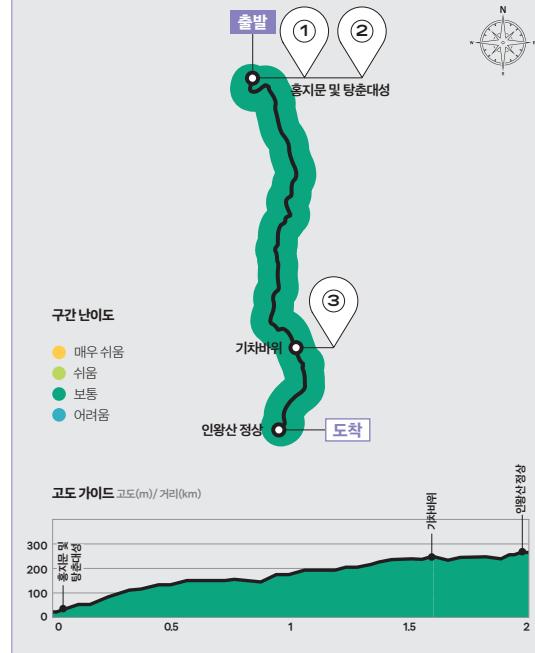


홍지문

한성의 북쪽에 있는 문으로, 속종이 친필로
'홍지문'이라는 편액을 하사하면서부터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 1413년 폐쇄된 숙정문 대신 도성으로
가는 실질적인 북대문의 역할을 했다. 1921년 홍수로
무너져 방치되었다가 1977년 복원됐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성으로 속종
44년(1718)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하였다. 창의문
서쪽부터 북한산의 비봉 아래까지 이르는 약 4km의
산성이다. 도성과 외곽 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고
군량을 저장하는 기능을 했다.

이동경로 홍지문 및 탕춘대성 → 기차바위 → 인왕산 정상



기차바위

인왕산 제일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 길쭉하게 펼쳐진
바위는 멀리서 보면 기차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평평한 기차바위능선 양옆으로 안전 로프가
설치되어 있다. 로프 밖으로 가파르게 휘어지는 바위
자락으로 인해 스릴을 느낄 수 있다.

하이킹 정보

- 탕춘대성을 지나는 길은 가파른 오르막이 있으므로 겨울에는 아이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돌계단과 숲길을 지나 밟출을 잡고 바위를 오르는 구간도 많으므로 장갑을 준비하자.
- 하산 시 창의문, 수성동계곡, 무악재 하늘다리 등 여리 갈래로 내려갈 수 있다.

휴식 정보

- 기차바위에 오르기 직전 많은 사람이 도심 풍경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20m 정도 간 뒤 시내버스 7018번을 타고 홍지문 정류장에 내려 인왕산둘레길 탕춘대성 이정표를 따라 올라간다.

MORE INFO

- 탕춘대성이라는 이름은 조선의 10대 국왕이었던 연산군의 연회 장소인 탕춘대가 지금의 세검정에서 동쪽으로 100m쯤 떨어진 산봉우리에 있던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본다. 한성의 서쪽에 있다 하여 서성으로도 불렸다.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 후기, 숙종은 수도방위를 위해 한양 도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하고 북한산성을 축성했는데 도성과 북한산성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성이 바로 탕춘대성이다. 이로써 조선은 견고한 수도방위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부암동 코스

석파정 서울미술관을 기점으로 부암동 일대에는 미술관을 비롯해 소소한 즐길 거리가 많다.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들과 맛집, 카페 등을 둘러보는 재미도 산행의 즐거움 못지않다. 이러한 예술적 감흥이 윤동주문학관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이어진다.

총 이동 거리 3.36km

총 소요 시간 2시간 10분

난이도 보통



SPOT



석파정 서울미술관

한국과 세계의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개관하였다. 다양한 문화의 허브인 서울의 정체성에 더욱 선명한 색채를 더하는 개성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부대시설로 석파정이 있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

인왕산 자락 서쪽 끝에 자리한 공원으로, 윤동주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이 일대를 거닐며 머리 속 시상을 정리했을지도. 언덕 위에 그의 대표작인 '서시'를 새긴 커다란 시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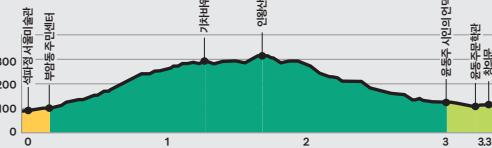
이동경로 석파정 서울미술관 → 부암동 주민센터 → 기차바위 → 인왕산 정상 → 윤동주 시인의 언덕 → 윤동주문학관 → 창의문

구간 난이도

- 매우 쉬움
- 쉬움
- 보통
- 어려움



고도 가이드 고도(m) / 거리(km)



윤동주문학관

윤동주 시인이 하숙 생활을 하며 종종 시상을 다듬었던 장소를 의미 있게 조명하고자, 방치된 청운수도가압장을 고쳐 문학관으로 만들었다. 문학제를 비롯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이킹 정보

-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세탁소와 편의점 사이의 골목길로 끝까지 올라간다. 이후 이정표가 나오면 인왕산 정상 방향인 원쪽으로 올라간다. 정비된 등산로가 아니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휴식 정보

-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인왕산 정상에 올라 창의문으로 하산하는 코스에는 화장실이 없다. 시인의 언덕 입구에서 청운문학도서관 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다.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시내버스 1020, 1711, 7016, 7018, 7022, 7212번 또는 5호선 광희문역 2, 3번 출구에서 시내버스 1020, 1711, 7016, 7018번을 타고 자하문터널입구에서 하차한다.

MORE INFO

- 정상에서 창의문 방향으로 하산하면 한양도성 성곽길을 걷게 된다. 성곽을 걸으며 시대별 돌의 모양과 축성 방법을 눈여겨 보자. 태조 때 쌓은 거칠게 디듬은 자연석, 세종 때 쌓은 옥수수알 모양의 돌, 숙종 이후의 정방형 돌 등 성돌의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COURSE 05.

야경의 아름다움에
시간이 머무는

인왕산 자락길 코스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인왕산 기슭에서 서울의 화려한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이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심의 야경이 운치 있다. 숲을 끼고 임도를 따라서 걷는 길이 잘
닦여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

| 총 이동 거리 2.73km | 총 소요 시간 1시간 10분 | 난이도 쉬움 |



SPOT



① 단군성전



② 황학정

우리 겨레의 시조이자 민족의 상징인 단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960년대 후반에 사직단을 복구하면서 한옥으로 신축한 이곳에는 단군의 영정과 함께 삼국의 초대 왕들의 신위도 모셔져 있다. 매년 개천절(10.3.)을 기념해 차례 의식이 열린다.

고종 황제가 세운 활터로 국가유산이다. 민족 전통 사예(활쏘기)를 중흥시키고자 1899년에 경희궁에 세워졌으나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고종 황제가 황색 곤룡포를 입고 활을 쏘는 모습이 마치 학과 같다 하여 황학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COURSE MAP

이동경로 사직단 → 단군성전 → 황학정 국궁 전시관 → 황학정 → 무무대 → 윤동주시인의 언덕 → 윤동주문학관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경사가 완만하고, 데크 길과 흙길이 어우러져 걷기 편하다. 등산화는 신지 않아도 되지만, 코스 중간에 가게가 없으므로 물은 행거 가는 것이 좋다.

휴식 정보

- 황학정을 지나면 바로 화장실이 있다. 전망대가 넓어 쉬어 갈 수 있고, 책방과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더숲 초소책방에서 잠시 머무는 것도 좋다.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 사직단 방향으로 향한다. 사직단 대문을 지나 황학정으로 가는 길 이정표를 따라 완만한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단군성전이 나온다.

MORE INFO

- 무무대와 서시정 사이에 위치한 더숲 초소책방은 원래 경찰초소였던 곳을 개조하여 카페와 책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숲속 풍광이 좋아 연인들이 많이 찾는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



③ 무무대(無無臺)

인왕산 자락길 중간 지점으로, 매년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아름다운 것만 있을 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무무대에서는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불빛으로 반짝이는 야경이 아름답다.



꽃 내음과 푸르름이 가득한

인왕산 숲길 코스

울창한 숲과 계곡, 흙 내음 물씬한 숲길 사이로 그림처럼 펼쳐진 서울 풍경을 볼 수 있다. 벚꽃이 만발하는 봄과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오는 여름에 한층 아름답다. 하이킹 코스를 걸으면서 자연의 변화에 오감을 집중해 보자.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햇빛, 잔잔하게 울리는 자연의 소리가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 총 이동 거리 2.9km |

| 총 소요 시간 1시간 30분 |

| 난이도 보통 |



SPOT



① 사직단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조선을 세운 태조가 한양에 수도를 정하고 궁궐과 종묘를 지을 때 함께 만들었다. 나라에 큰일이 있거나 가뭄에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풍년을 비는 기곡제 등을 이곳에서 지냈다.

인왕산에서 가장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경복궁을 중심으로 인왕산은 서쪽에 해당하는데 서쪽의 색은 흰색, 상징 동물은 호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이곳에서 인왕산 흰 호랑이의 정기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동경로 사직단 → 택견수련터 → 수성동계곡 → 해맞이동산 → 구름다리(가온다리) → 이빨바위 → 청운공원 → 윤동주문학관



③ 구름다리(가온다리)

숲길의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구름다리로,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출렁다리다. ‘가온’은 가운데, 중심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아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이킹 정보

- 인왕산 숲길은 종로 건강산책로와 연계되어 있어 여러 갈래길이 나온다. 당황하지 말고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 해맞이동산을 지나 가온다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의 풍광이 좋으니 놓치지 말 것. 가온다리를 건너기 전후의 계단길이 경경사다.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발을 헛디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휴식 정보

- 코스 사이사이에 장소와 연관된 상징 시설과 안내 패널이 있는데, 공간도 널찍하고 나무 의자도 있어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와 300m 직진 후 사직단 입구에서 출발한다.

MORE INFO

- 본래 인왕산은 경복궁의 서쪽에 있다 하여 서산(西山)이라고 하다가 조선왕조를 수호하려는 뜻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신(金剛神)의 이름인 ‘인왕’으로 산의 이름을 개칭했다.
- 인왕산 구름다리와 이빨바위 사잇길은 조선 후기 최고의 대금 명인 정약대에게 훌륭한 연습장이었다. 연습할 때마다 나막신에 모래알을 하나씩 넣어 그것이 가득 찬 뒤에야 산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밀스럽게 이어지는
사색의 숲길 속으로

인왕산 둘레길: 서대문 코스

산모퉁이를 둘러싸고 있는 데크 길이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맑은 숲길이다. 바위틈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장단을 맞추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지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다.
소나무와 길가에 피어 있는 소박한 꽃들까지 아름답다.



총 이동 거리 3.43km



총 소요 시간 2시간



난이도 보통



SPOT



① 용천약수터



② 무궁화동산

새소리가 들리는 숲길에 위치한 용천약수터로
가기 위해서는 짧은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
약수터 앞에는 정자가 있는데, 그곳에 앉아
바라보는 풍광이 운치 있다. 돌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을 맑게 해준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곳. 홍제동 주민들이 상시 운동할 수
있고 서로 학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성된
근린공원이다. 여러 종류의 운동기구들과 쉴 수
있는 정자가 자리해 있다.

이동경로 흥지문 및 탕춘대성 → 용천약수터 → 개미마을 → 무궁화동산
→ 무악재 하늘다리



하이킹 정보

- 야생화가 피어 있는 숲길과 돌계단, 걷는 촉감이 좋은 흙길과 잘 조성된 데크 길이 번갈아 반복되어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으며, 등산화를 신지 않아도 될 만큼 평坦한 산책길이다.
- 매화가 필 무렵에는 사진으로 남기기에 좋은 곳이다. 무궁화동산을 지나 무악재 하늘다리로 향하는 길목은 주택 인접 지역이므로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자.

휴식 정보

- 용천약수터에는 정자가 있어 잠시 쉬어 갈 수 있고, 50m 근방에 첫 번째 화장실이 나온다. 무궁화동산을 지날 때에도 다목적구장 앞에 화장실이 있다.

찾아가기

-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하차해 시내버스 7016번이나 1711번을 타고 상명대입구 세검정교회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도보 5분 거리에 흥지문 및 탕춘대성이 있다.



③ 무악재 하늘다리

도로 개설로 단절된 인왕산과 안산을 이어주는
생태 연결 다리다. 생물종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야생동물을 이동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에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숲길을 산책하며
산행의 즐거움까지

인왕산 둘레길: 종로 코스



SPOT



① 무악공원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숲길을 거닐 수 있는 곳.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특히 공원 내 자리한 어린이놀이터에는 미로 탈출,
로프 잡고 암벽 오르기, 나무다리 건너기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있어 가족이 함께 방문하면 좋다.



② 택견수련터

택견꾼들이 수련을 하고 기량을 겨루던 조선의
마지막 수련터다. 예부터 전해 내려온 고유의
무예인 택견은 2011년 11월, 전 세계 전통무예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무형유산이다.

이동경로 무악재 하늘다리 → 무악공원 → 택견수련터 → 수성동계곡 →
청운문학도서관 → 창의문 → 부암동 주민센터 → 흥지문 및 탕춘대성



③ 창의문

인왕산과 북악산이 만나는 곳에 있는 문. 사소문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지어진 문루가 남아 있다.
이 문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41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 일대의 풍광이 개성의 경치 좋은
자하동과 비슷하다고 하여 자하문이라고도 불린다.

하이킹 정보

-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흥지문들레길로 가는 길은 주택가 골목을 거쳐야 하는데 가파른 급경사의 오르막길이다. 편의점과 세탁소 사이 골목길을 따라 성덕사 방향으로 올라간다.
- 흥지문 갈림길로 들어서는 초입부터 군부대 아래 벙커 옆길은 잘 닦아지지 않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

휴식 정보

- 수성동계곡에 밭을 담그며 잠시 쉬어도 좋고, 숲길 곳곳에 쉼터가 많아 휴식을 취하기 편하다.

찾아가기

-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644m 지점에 무악재 하늘다리가 있다.

MORE INFO

- 숲길을 걷다 보면 매일 아침 수성동계곡에서 목욕하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다는 근현대미술 거장으로 꼽히는 이중섭의 자취를 만날 수 있고, 둘레길 쉼터에서는 초현실주의 시인 이상의 시와 서양화가 구본옹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구본옹은 이상의 초상화를 그렸고, 이상은 구본옹을 위해 시를 썼다.
- 조선 후기 천재 화가 겸재 정선의 대표작 <인왕제색도>는 국보로 지정된 걸작으로, 지금의 효자동 방면에서 바라다보이는 인왕산의 동쪽을 그린 작품이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렸다고 한다.

예술적 영감을 위한 여정

인왕산은 등산 초보자도 풍경을 감상하며 오르기 좋은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랐다 내려오면 오후부터 새로운 서울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미적 감수성을 채우고,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이 코스를 따라 여행해 보자.



인왕산 1박 2일 코스 안내

PM 12:00 더숲 초소책방 등산 후 커피와 빵으로 짧은 휴식 - 3.2km (차량 9분 이동) →

PM 1:30 오에프알 문화적 감수성 충전 - 2.2km (차량 10분 이동) → **PM 3:30** 티테라피 족욕 후 체질에 맞는 한방차 처방 -

2.1km (차량 10분 이동) → **PM 6:00** 토속촌 뜨끈한 삼계탕으로 원기 충전 - 394m (도보 7분 이동) →

PM 8:00 진서재 고요한 마무리

인왕산이 보이는 서촌 풍경



홍건의 가옥

상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홍건익은 1934년

필운동 토지를 매입하고 2년에 걸쳐 건물을

지었다. 대문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가옥은 사랑채 중문을 경계로

안채, 바깥채가 나뉘고 일각문을 통해 후원으로

이어진다. 특이한 점은 루원의 지대가 높아

그 단자를 이용해 빙고(氷庫)를 만들었다는 것.

2013년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이후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아카이브 전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덕분에 주민들과 교류하는 유기적인

공간이 되었다.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1길 14-4 ☎ 02-735-1374

◆ 10:00~18:00, 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조계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사찰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과 전통 건축물, 여기에 불교문화가 더해져 특유의 매력을 발산한다. 봄의 연등, 여름의 연꽃, 가을의 국화까지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곳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다. 1박 2일 체험형 프로그램인 '쉼표 하나'와 당일형 '울웨이즈'가 운영 중이다. 일일 수행자가 되어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도량을 산책하는 사이 자기 안에 자리한 본래 평화와 지혜를 만날 수 있다.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02-768-8660

티테라피

윤보선 생가 일부를 개조해 만든 티테라피에서는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추천받아 마실 수 있다.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율무를, 스트레스가 많고 눈에 피로가 쌓인 이에게는 구기자를 추천한다. 오랜 시간 앉아내는 방식으로 만든 차를 음미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보자. '향으로 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통통차는 티테라피의 본질과 닮아 있다. 카페 밖에 마련된 족욕 공간에서도 힐링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74 ☎ 02-730-7507

◆ 월~토요일 10:00~21:00, 일요일 10:00~20:00



서촌 특유의 예술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



더숲 초소책방

인왕산 중턱에 위치한 경찰 초소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0년 책방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건물 전체에 개방감을 부여해 인왕산의 경관은 물론 곳곳에 남아 있는 초소의 역사적 흔적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1층 서가에는 자연, 명상, 인생수업 등을 키워드로 선별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주문한 음료와 읽고 싶은 책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보자. 멋진 바위산과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문학적 사색에 빠져볼 수 있다.

▣ 서울 종로구 인왕산로 172 ☎ 02-735-0206
○ 08:00~22:00(21:30 라스트오더)



메이크풀리오 서촌

파리 마리지구에서 서점으로 출발한 오에프알파리(oфр. Paris)는 스튜디오에서 출판사로 영역을 확장하며 파리의 창작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그 공간이 서울 성수동에 이어 서촌으로 옮겨 자리를 잡게 된 것. 자유로운 예술가의 감수성으로 단독주택을 개조해 완성한 공간 내부로 들어가면 허물어진 벽과 불규칙하게 진열된 상품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예술 서적은 물론 감각적인 디자인의 대형 포스터, oфр 로고가 박힌 에코백이나 굿즈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가득하다. 덕분에 멀리 여행을 떠나온 듯한 기분이 든다.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2길 11-14 1층 ☎ 02-111-1110
○ 11:00~20:00, 월요일, 마지막주 목요일 휴무

인왕산 대충유원지

무색무취의 심플한 분위기를 지녔으나 가장 개성적인 건물로 대표되는 서촌의 무목작빌딩. 빌딩은 동네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채 건물 안에서 물 흐르듯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미로 같은 계단을 통해 4층 대충유원지를 향하는 동안 건물 틈으로 보이는 서촌의 모습이 흥미롭다. 커다란 커피머신은 뷰를 해칠 수 있어 과감히 생략하고, 매주 두 가지 원두를 골라 드립 커피로 선보이는 분명한 취향을 가진 공간이다. 아외 베란다에 앉아 인왕산을 감상하는 묘미도 선사한다.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46 4층 ☎ 070-7807-5640
○ 12:00~22:00(21:30 라스트오더), 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박노수미술관

한국화가 청전 이상범 가옥과 시인 윤동주 하숙집을 지나 주택가 골목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박노수미술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1937년경 절충식 기법으로 지어진 가옥으로, 1973년부터 2011년까지 박노수 회백이 거주하며 작업을 했다. 이후 사회 환원의 뜻을 품고 기증 협약을 맺어 2013년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으로 개관했다. 작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획 전시는 여행자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서울 종로구 육인1길 34 ☎ 02-2148-4171
○ 10: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EAT

시간이 쌓여 완성한 진한 인생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서촌블루스

조금 이른 오후, 음악과 함께 술 한잔 곁들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서촌블루스로 향하자. 가파른 계단을 올라 도착한 2층, 문 밖으로 음악이 새어 나오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LP와 CD가 배곡한 공간이 나타난다. 이곳은 옛날 LP비처럼 신청곡을 적어 내면 음악을 들어준다. 테이블 위 작은 메모지에 좋아하는 곡을 적어 주인장에게 전달해 보자.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서촌블루스에서는 흥겨운 포크 공연과 재즈 공연이 종종 열린다.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7-1 2층 ☎ 070-8878-1412
◎ 15:00~01:00(23시 이전 입장), 일요일 휴무



통인시장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쉼터 같은 정자를 발견했다면 통인시장 서쪽 출입구를 통해 시장 구경을 시작할 수 있다. 불과 200m 길이의 시장에는 좌우로 80여 개의 다양한 가게가 들어서 있어 삶의 구수한 향기를 전한다. 마니아 층이 두터운 명물 기름떡볶이는 물론 색색의 채소를 넣어 만든 전병, 어마어마한 길이의 닭꼬치 등 미식 투어도 할 수 있다. 참고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엽전과 빙瓮기를 받아서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구입해 취향별로 도시락을 구성해 보는 재미도 쏘쏠하다.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5길 18 ☎ 0507-1378-0940
◎ 09:00~21:00(점포별 상이), 매월 셋째 주 일요일 휴무,
도시락카페 매주 화요일 휴무

STAY

오래된 한옥에서 경험하는 평온한 휴식

한옥에세이 서촌

누하동 한쪽의 작은 골목에 삶의 소박한 점서를 담은 한옥에세이가 여행자를 기다린다. 이곳은 일상적 경험의 소중함을 극대화해 주는 힘이 있다. 들어서면 처음 마주하는 마당은 디딤석을 따라 꽃담을 거닐도록 이끈다. 리운지 공간에서는 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음악을 감상하는 힐링의 시간이 이어진다. 모던한 스타일의 육조에서는 몸과 마음이 이완되며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마당 한쪽에 심은 배롱나무가 분홍색 꽃을 피우는 계절이 되면 꽃말처럼 행복이 배가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3길 12
☎ 0504-0904-2431 ◇ 체크인 16:00, 체크아웃 11:00



© Texture on texture



© Texture on texture



일독일박

'일독일박'은 '한 권의 책과 머무름'이라는 이름처럼 중정의 자작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프라이빗 한옥 스테이다. 좀 더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정소와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하고, 준비된 향초를 켜 다음 중정에 마련된 유통에 발을 담가보자. 중정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자 형태의 구조적 묘미도 느껴볼 수 있을 터이다.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3길 11-1 ☎ 0504-0904-2340
◇ 체크인 18:00, 체크아웃 14:00



진서재

기존 나무의 결을 해치지 않고 낡은 한옥을 다듬어 완성한 진서재에서 머무는 하루는 특별하다. '별이 깃드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진서재는 기와 틈 사이로, 침대에 누워 바라보는 천장의 지붕 틈으로 하늘이 고스란히 보인다. 가운데 다이닝 공간을 중심으로 암쪽에 배치된 침실과 각각 다른 분위기의 육실이 연결되어 있다. 통인시장과 가까운 골목 어귀에 위치해 있어 어쩐지 하루 사이에 동네 주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17-17 ☎ 1544 - 5931
◇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인왕제색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

경복궁 서편, 인왕산 기슭의 동네 서촌에

조선 회화의 독창적 장르인 진경산수화의 원조이자 대가인 경재 정선이 살았다.
그는 병상에 누운 60여 년 지기의 쇄유를 비는 간절함을 담아 인왕제색도를 그렸다.

글. 박현택(연필뮤지엄관장)

서울을 호위하는 산

조선은 왕조의 안녕을 위해 정궁인 경복궁의 주산을 북악(北岳)으로 정하고, 낙산(駱山)을 좌청룡으로, 인왕산(仁王山)을 우백호로 삼았다. 인왕산은 조선 초기에는 서산(西山)이라 했다. 산의 이름에 인왕을 붙여 왕조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담아 세종 때부터 인왕산으로 불렀다. 대부분 화강암으로 뒤덮인 인왕산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기괴한 형상을 한 바위가 많다. 구멍이 송송 뚫린 풍화혈이나 절리가 자주 눈에 띠며 바위마다 선바위, 해골바위, 모자바위, 범바위 등 각양각색의 이름이 붙어 있다.

조선 회화의 독창적 장르, 진경산수화

경재의 대표작 <인왕제색도(仁王齋色圖)>는 경복궁 쪽에서 인왕산 치마바위 쪽을 바라보며 그린 그림이다. 비가 그친 후의 인왕산을 표현한 그림으로 여기에서 '제색(齋色)'이란 비나 눈이 갠 후의 산빛이나 하늘빛을 말하는데, 조선의 문인들이 시문에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자 맑은 정신을 지향하는 사대부들의 정서적 지표이기도 했다. 그런데 <인왕제색도>를 인왕산과 비교해 보면 별로 닮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예로부터 예술가들은 미의 원형을 자연에 두고 그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실제의 산천을 표현한 산수화를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畫)라고 한다. 반면 우리에게 친숙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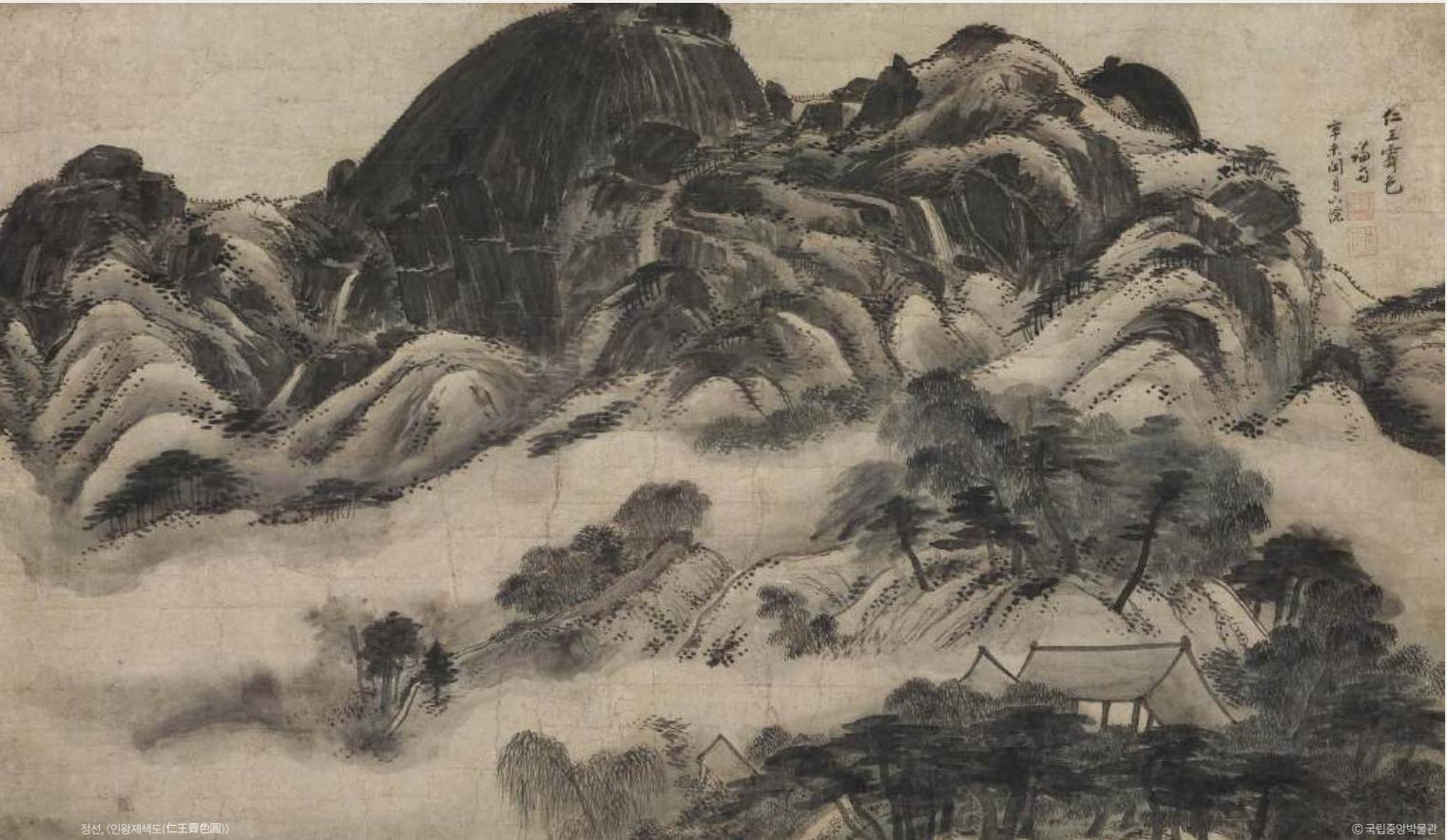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는 실제 경치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재해석하는 주관성이

가미되어 그림이 실제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 회화의 독창적인 장르인 진경산수화의 원조이자 대가가 바로 경재 정선이다. 경재가 76세 때 그린 <인왕제색도>에는 병상에 누워 있던 60여 년 지기 사천 이병연의 쇄유를 비는 간절함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사천과 경재는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다. 경재는 당시 조선을 문화의 중심으로 보는 조선 중화사상을 이끈 노론 가문 출신이며, 경재와 사천의 시대 의식에서 비롯된 우리 고유의 새로운 예술 양식이 진경산수화였다.

<인왕제색도>는 비가 갠 뒤의 산을 그린 것이니 화창함이 두드러져야 하겠지만, 그림은 강렬한 먹과 밝은 어백의 대비로 긴장감이 감돈다.

산봉우리는 앙각(仰角, low angle)으로, 산기슭에 붙은 동네(기와집)는 부감(俯瞰, high angle)으로 처리해 화면에 깊이가 있다. 겸은 산봉우리는 잘려 나가게 표현해 기묘한 압박감을 주며 꿈틀거리는 산세, 산을 휙감고 도는 운무는 역동적이다.

정치적·사상적 동지의 우함을 배경으로 한 경재의 그림에 일말의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경재가 그림에 담은 뜻을 다 알아채기는 어렵다. 분명한 건 경재는 기존과 달리 실재에 관념을 추가해 <인왕제색도>를 완성했고, 인왕산은 그로 인해 더욱 신령스러워졌다.



정선, <인왕제색도(仁王齋色圖)>

© 국립중앙박물관

북악산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마운틴 테라피

사계절 중 언제 찾아도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북악산을 오르는 길.

일월오봉도가 떠오르는 북악산 진경산수의 기품을 따라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한눈에
담기는
마운틴 뷰

곡장에서 바라보는 경이로운 자연의 풍광



한 눈에
담기는
마운틴 뷰

바위에
새겨진
염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귀가 새겨진 만세동방 악수터

역사의
기록이
담긴 곳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던 춘추관

느리게 걷는 산행의 즐거움

북악산은 급경사를 이루며 화강암이 곳곳에 노출된 거대한 바위산이다. 돌산과 경사가 만들어낸 등산로 덕분에 ‘매콤한 산’으로 불리는데, 꼭 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북악산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북악산둘레길이 있어 누구나 산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북악산에서는 정상에 달아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그저 산을 오르는 온전한 기쁨을 느끼는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산행을 위해서는 여러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난도가 높지 않고 여행객이 혼자 걷기 좋은 삼청공원 코스나 북악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성곽을 따라 걷는 서울 한양도성길을 추천한다. 북악산은 얼마 전까지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만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진짜 숲’을 마주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백악산, 면악산으로도 불린 북악산은 일찍이 조선의 화가와 시인들이 찾아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김윤겸의 그림 <백악산도>나 도윤의 시조에도 북악산의 빼어난 절경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직접 산의 정취를 느끼고 마음을 치유하는 산행은 누구에게나 울림을 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북악산은 높이 342.5m의 산이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능선을 갖고 있죠. 온전히 산을 즐기기 위해서는 굳이 정상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오르고, 바쁘지 않게 오르면서 내려놓는 방식의 등산으로 북악산을 즐겨보세요.”

- 김섬주(하이킹 에반젤리스트)



북악산 8코스 하이킹 맵

북악산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40년 가까이 출입이 제한되다가 2007년 성곽길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북쪽 탐방로가, 2022년에는 남쪽 탐방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북악산에 있는 안내소들은 입산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른 시간에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11~2월에는 9~17시까지(15시까지 입산), 3~4월과 9~10월은 8~18시(16시까지 입산), 5~8월은 7~19시(17시까지 입산)까지 개방한다.



COURSE 01.

창의문 - 백악마루 코스 (p.78)

창의문 - 청운대쉼터 - 백악정 - 춘추관

COURSE 02.

청와대 - 삼청공원 코스 (p.80)

춘추관 - 청운대 - 밀바위전망대 - 삼청공원

COURSE 03.

청와대전망대 - 춘추관 코스 (p.82)

칠궁 - 청와대전망대 - 춘추관

COURSE 04.

창의문 - 혜화문 코스 (p.84)

창의문 - 백악마루 - 곡장 - 와룡공원 - 혜화문

COURSE 05.

창의문 - 밀바위 코스 (p.86)

창의문 - 청운대 - 촛대바위 - 삼청공원 입구

COURSE 06.

여래사 - 호경암 코스 (p.88)

여래사 - 호경암 - 숙정문안내소 - 삼청각

COURSE 07.

북악하늘길 코스 (p.90)

하늘한미당 - 다모정 - 북악팔각정 - 카페 산모퉁이 - 창의문

COURSE 08.

백사실계곡 - 성균관 코스 (p.92)

세검정 - 백사실계곡 별서터 - 성북천 발원지 - 와룡공원 - 명륜당

COURSE 01.

청와대전망대를 오르는 창의문- 백악마루 코스



SPOT



①

창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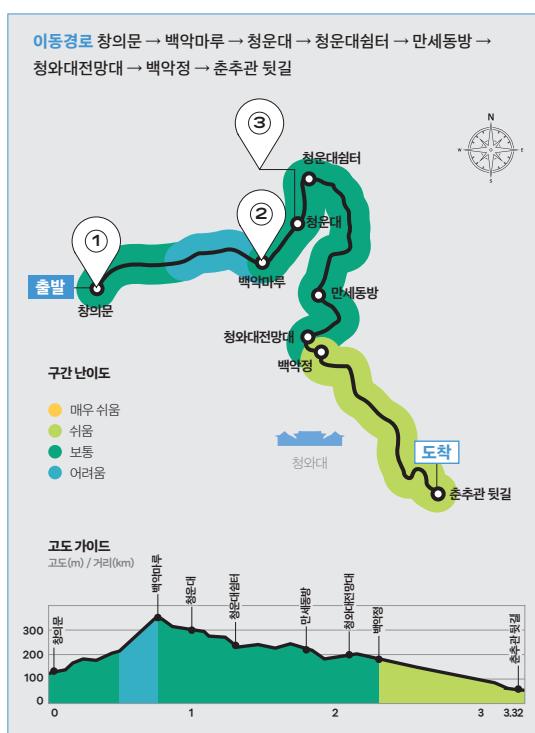
②

백악마루

북악산과 인왕산이 만나는 곳에 세워진 문으로 북문 또는 자하문이라 불린다. 1396년 한양 성곽을 쌓을 때 세운 4개의 작은 문 중 하나로 1623년 반란군이 창의문을 통해 궁 안으로 쳐들어가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새 임금으로 옹립했다고 전해진다.

해발 342.5m 북악산 정상으로 '白岳山(백악산)'이라 새겨진 비석이 있다. 조선시대 백악산신을 모시는 사당을 두고 봄기를 제사를 지내 북악산을 백악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정상 한쪽에는 화강암 바위가 솟아 있으며, 이곳에 서면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COURSE MAP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만세동방에서 춘추관까지 내려가는 구간은 경사가 가팔라 평소 물体质이 좋지 않다면 등산 스틱을 준비하는 게 좋다.
- 창의문부터 백악마루까지 오르막 구간은 경사가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므로 길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핸드레일을 잡고 안전하게 올라가길 추천한다.

휴식 정보

- 창의문에서 백악마루까지 오르는 성곽 구간에는 돌고래쉼터와 백악쉼터가 있다.
- 오르는 중간에는 물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식수를 챙겨 산을 올라야 한다.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시내버스 1020번을 타고 자하문고개-윤동주문학관 정류장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면 창의문안내소에 닿는다.

MORE INFO

- 청와대전망대에서 백악정을 거쳐 춘추관에 도착하는 길은 북악산 탐방로 중 가장 최근인 2022년에 개방되었다. 청와대전망대는 서울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포토 스폽이다.



③

청운대

해발 293m로 전망이 수려한 곳이다. 안산과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배경으로 건물과 집들이 빼곡히 보인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경복궁과 광화문은 물론 남산타워 너머 한강과 강남 빌딩 숲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맑은 숲을 거닐 수 있는 청와대- 삼청공원 코스



SPOT



①

춘추관



②

숙정문

춘추관이란 이름은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을 맡았던 관아 춘추관과 예문춘추관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청와대 부속건물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서울 성곽 사대문 중 하나로 원이름은 숙청문이다. 숙청문은 음양오행 중 물을 뜻하는 음에 해당해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문을 닫았다. 주말이면 등산객이 많으므로 주중 산행을 하는 것이 여유롭다.

이동경로 춘추관 뒷길 → 백악정 → 만세동방 → 청운대 → 숙정문 → 말바위안내소 → 말바위전망대 → 삼청공원 입구



③

삼청공원

경복궁 북동쪽 북악산 기슭에 자리한 도시자연공원이다. 청계천 상류인 삼청천계곡과 노송 숲이 아름다우며, 삼청공원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 생태 공원, 숲속도서관이 있다. 트레킹 후 여유가 있다면 숲속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으며 휴식해 보자.

하이킹 정보

- 코스 중간중간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이어지므로 등산 스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춘추관 뒷길 입구부터 백악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포장도로지만 꽤 가파르다. 백악정부터 만세동방 구간은 코스 중 가장 힘든 곳으로 오르막과 계단이 가파르게 이어진다.
- 청운대를 이미 다녀왔다면 만세동방에서 숙정문으로 바로 갈 수 있다.

휴식 정보

- 청운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 도심 풍경을 감상하며 가쁜 숨을 돌릴 수 있다. 이곳에서는 멀리 롯데월드타워와 남산서울타워를 눈에 담을 수 있다.

찾아가기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시내버스 1711번을 타고 효자동 정류장에서 내린다. 효자동 정류장에서 청와대 앞길을 가로질러 910m 정도 걸으면 청와대 춘추관이 나온다.

MORE INFO

- 삼청공원으로 하산했다면, 삼청동 나들이는 필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한옥들이 개성 만점의 솔과 카페, 갤러리로 변신하여 묘한 매력으로 시선을 끈다. 맛집도 많아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COURSE 03.

북악산 최고의 전망이 펼쳐지는

청와대-전망대-춘추관 코스

비교적 등산 시간이 적게 걸리고 이동 거리가 짧아 산책하듯 오를 수 있는 코스다. 대통령에서 오른쪽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따라 걸으면 이 코스의 가장 높은 곳인 청와대전망대에 도착한다. 나무 데크 전망대에서 서면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시청까지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총 이동 거리 2.18km | 총 소요 시간 50분 | 나이도 보통



SPOT



① 백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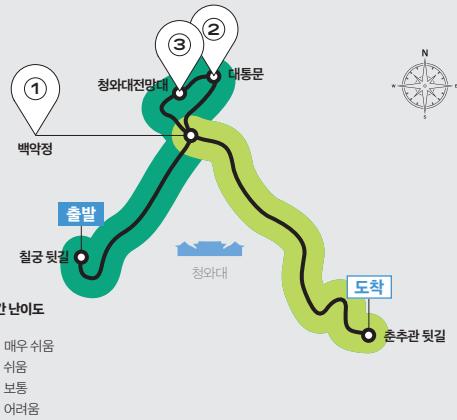
② 대통령

청와대전망대에 오르기 전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곳이다. 백악정에 앉으면 청와대 담벽 너머로 남산서울타워가 보이며 멀리 청계산 풍경도 펼쳐진다. 전직 대통령들이 심은 느티나무와 서어나무 정자목이 백악정 좌우를 지키고 있다.

청와대전망대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대통령은 개방 시간이 지나면 닫힌다. 그럴 경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백악1교와 백악2교를 지나 삼청공원 쪽으로 내려가야 한다.

COURSE MAP

이동경로 칠궁 뒷길 → 백악정 → 대통령 → 청와대전망대 → 춘추관 뒷길



고도 가이드 고도(m) / 거리(km)



③ 청와대전망대

청와대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서울 도심 풍경은 많은 등산객의 감탄을 자아낸다. 청와대 전망대 왼쪽으로는 남산, 오른쪽으로는 관악산이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잠실 롯데월드타워까지 보인다. 파노라마 뷰의 사진 촬영 명소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칠궁 뒷길부터 백악정까지는 가파른 돌계단이 이어진다. 등산 스틱을 준비하면 한결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휴식 정보

- 백악정에 앉으면 청와대 담벽 위로 펼쳐진 남산과 그 너머 청계산의 오른쪽으로 관악산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시내버스 1711번을 타고 효자동 정류장에서 내려 신교동 교차로를 지나 시화문 방향으로 300m 걷는다. 시화문과 무궁화동산 사이 창의문로를 따라 직진하다 보면 칠궁이 나오는데 칠궁 뒷길이 북악산 등산로로 이어진다.

MORE INFO

- 1395년에 경복궁이 창건된 뒤 지금의 청와대 부지는 궁궐의 후원으로 쓰였다. 1937년부터 1939년에 걸쳐 지어진 청와대는 당시 경무대로 불렸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됐다. 청와대는 제4대 윤보선 전 대통령 시절부터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2022년 5월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 청와대 정문에서 북악산을 올라다보면 청와대 지붕 위로 범틀처럼 톡 튀어나온 바위 두 개가 눈에 들어오는데 마치 야기를 엽은 모습 같아 부야암 또는 해태바위로 불린다. 해태는 불을 먹는 상상의 동물로 불의 기운이 승해 화재가 날까 염려하는 마음에 해태상을 광화문 곳곳에 세웠다.

서울 한양도성길을 따라 걷는

창의문- 혜화문 코스

서울 한양 성곽을 따라 걷는 코스다. 성곽은 조선시대에 북쪽에서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높이가 5~10m에 달한다. 서울 한양도성길은 총 18.6km로 남산부터 안산, 인왕산을 거쳐 북악산으로 이어진다. 이 코스는 그중 창의문부터 혜화문까지 걷는 길로 북악산의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총 이동 거리 5km

총 소요 시간 2시간 10분

난이도 보통



SPOT



① 촇대바위



② 와룡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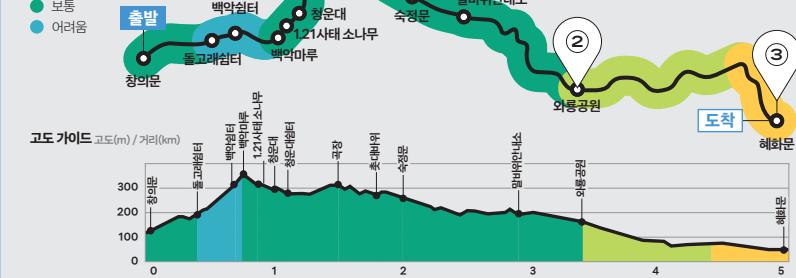
숙정문의 북서쪽 400m 지점에는 13m 높이의 촇대바위가 있다. 그 아래쪽에는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쉼터가 있는데,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예로부터 그 모습이 용이 길게 누워 있는 형상과 같다 하여 와룡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명륜동 주민들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를 자청해 심어놓은 나무가 올창해 계절마다 달라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이동경로 창의문 → 돌고래쉼터 → 백악쉼터 → 백악마루 → 1.21사태 소나무 → 청운대 → 청운대쉼터 → 곡장 → 촇대바위 → 숙정문 → 말바위안내소 → 와룡공원 → 혜화문

구간 난이도

- 매우 쉬움
- 쉬움
- 보통
- 어려움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창의문부터 백악마루까지는 가파른 돌길이므로 등산 스틱 등 안전 장비를 준비하고 길을 따라 설치된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갈 것을 권한다.

휴식 정보

- 와룡공원부터 혜화문 구간은 1.6km로 30분 가량 소요되니 미리 말바위전망대에서 쉬면서 충전하는 것이 좋다.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시내버스 1711, 7212번을 타고 자하문고개·윤동주문학관 정류장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면 창의문안내소에 닿는다.

MORE INFO

- 도착점인 혜화문 천장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다. 동소문 밖 숲에 사는 새들 탓에 농사 피해가 심해 새들의 왕인 봉황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 한양도성길은 조선 수도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층조한 성을 따라 걷는 길이다. 태조 5년(1396)에 한양도성 안쪽을 둘러싼 내사산인 북악산·낙산·남산·인왕산 능선을 따라 성을 쌓았고, 여러 차례 개축했다.



③ 혜화문

조선은 한양도성을 지을 때 대문 4개, 소문 4개를 만들었다. 혜화문은 동문과 북문 사이에 세워진 소문으로, 동소문이라 불렸다. 혜화문 건너편에는 한양도성 순성길인 낙산 구간으로 이어진다.

북악산의 가장 오래된 능선

창의문- 말바위 코스

백악마루부터 곡장을 지나 말바위까지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 사대부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로 꼽은 삼청동이 내려다보인다. 이 구간은 가장 오래된 북악산 등산 코스 중 하나다. 칠궁 뒷길이나 춘추관 뒷길로 내려가는 코스가 개방되기 전에는 많은 등산객이 능선을 따라 크게 도는 말바위 코스를 많이 이용했다.

총 이동 거리 4km

총 소요 시간 1시간 50분

난이도 보통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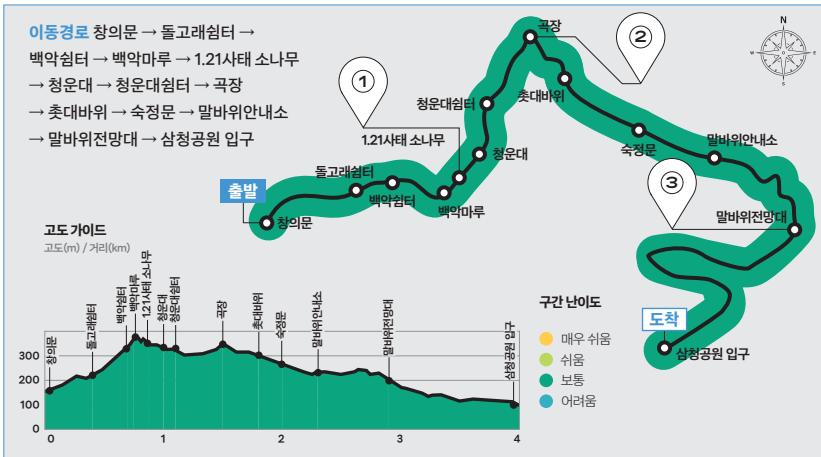
① 1.21사태 소나무



② 곡장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했는데 군·경은 교전 중 달아난 무장공비를 쫓아 이곳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당시 총격전으로 소나무에는 총탄 15발이 박혀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그 뒤로 1.21사태 소나무라고 부른다.

곡장이란 적군을 감시하고 막기 용이한 곳에 성곽 일부를 돌출시켜 쌓은 방어탑으로 시야를 막는 장애물이 없어 전망이 좋다. 경복궁과 세종대로, 동쪽으로는 백악마루와 인왕산, 북쪽으로는 북한산과 도봉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창의문부터 백악마루까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의 연속이다. 계단을 따라 설치된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가거나 등산 스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휴식 정보

- 말바위전망대부터 삼청공원 입구까지 계단이 많으므로 말바위안내소나 전망대에서 쉬었다 내려가는 것을 추천한다.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시내버스 1711번, 7212번을 타고 자하문고개·윤동주문학관 정류장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면 창의문안내소에 닿는다.

MORE INFO

- 북악산 동쪽 기슭에 있는 삼청동은 예부터 숲이 울창하고 물이 맑았다. 산과 물과 사람이 맑아 삼청동이라 불린 것이다. 과거 부녀자들은 해마다 정월대보름 전에 삼청동 깊은 골짜기를 지나 숙정문까지 세 번 오르내리며 액막이를 했다고 한다.



③ 말바위전망대

말바위는 조선시대의 문무백관이 말을 타고 이곳에 와 쉬면서 시를 읊고 녹음을 만끽하던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전망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 가까이로는 종로가,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남산까지 한눈에 담긴다.



역사가 새겨진 현장

여래사-호경암 코스

북악 하늘교(하늘마루)를 지나 호경암, 남마루, 성북천 발원지까지 이어지는 북악하늘길 2코스로, 속칭 김신조 루트라 한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넘어온 침투로다. 호경암에는 아직도 수십 벌의 탄흔이 남아 있어 당시 격렬했던 교전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총 이동 거리 2.48km

총 소요 시간 1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SPOT



여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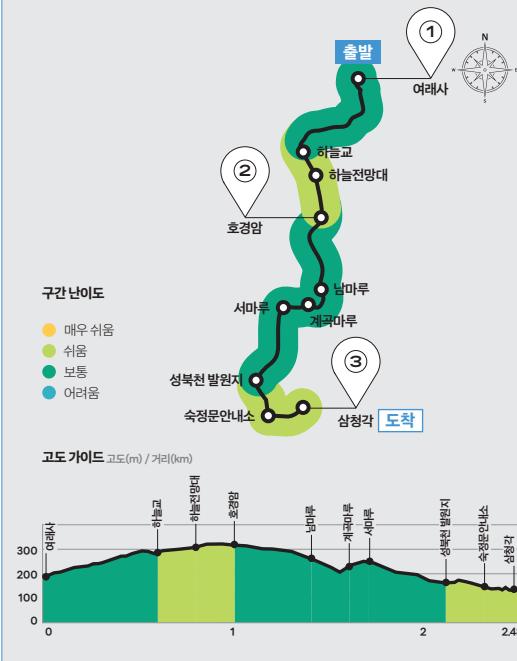


호경암

항일 독립투쟁을 한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사찰이다. 자손이 없거나 유해를 찾지 못한 선열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907년 네덜란드 해이그에 밀사로 파견됐다 순국한 이준 열사를 비롯해 총 373명의 넋을 기리고 있다.

남파된 무장공비들이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 구진봉과 성북동 뒷산 사이로 도주했다. 경찰은 호경암 주변을 수색하던 중 달아나던 공비들을 발견하고 전투를 벌이다 총 3명을 사살했다. 지금도 바위에는 당시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동경로 여래사 → 하늘교 → 하늘전망대 → 호경암 → 남마루 → 계곡마루 → 서마루 → 성북천 발원지 → 숙정문안내소 → 삼청각



삼청각

삼청터널 입구 왼쪽에 자리한 삼청각은 우리 고유의 반가 요리와 궁중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정식 전문점이자 각종 모임과 행사가 가능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전통 한옥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하이킹 정보

- 호경암부터 성북천 발원지까지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몸의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등산 스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북악하늘길 2코스에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뷰 포인트가 많다. 하늘전망대에서는 보현봉, 사모바위, 비봉, 향로봉 등 북한산 봉우리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휴식 정보

- 성북천 발원지의 작은 연못과 계곡마루 벤치는 시원한 계곡 물 소리를 들으며 쉬었다가기에 좋다.

찾아가기

- 우이신설선 정릉역 1번 출구로 나와 송덕초교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1213, 7211, 171, 163번을 타고 국민대앞 정류장에서 내린 후 북악터널 방향으로 5분가량 올라가면 북악공원지킴터에 닿는다. 이곳을 지나 터널 쪽으로 100m가량 오르면 여래사로 가는 길이 나온다.

MORE INFO

- 삼청각 주변에는 소문난 맛집이 많다. 한국의 전통음식은 물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베이커리와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들이 곳곳에 있다. 천천히 주변을 산책하며 둘러보아도 좋다.

COURSE 07.

숨은 생태숲길을 만나는 곳

북악하늘길 코스

청와대를 에워싼 북악산 능선과 산자락을 잇는 길로, 드라이브 명소인 북악스카이웨이를 따라 북악산 한쪽으로 조성된 산책로와도 연결된다. 오랫동안 민간인의 출입을 금했던 덕분에 청정 자연의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깊은 숲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총 이동 거리 9km

총 소요 시간 2시간 50분

난이도 보통



SPOT



① 성북천 발원지



② 북악팔각정

성북천은 북악산에서 흘러내려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한강 지류 하천으로 북악산길 2코스 말미에 성북천 발원지가 있다. ‘가재가 헤엄치는 다리’ 아래 위치한 성북천 발원지는 다양한 수변 식물과 조류 및 곤충의 서식처로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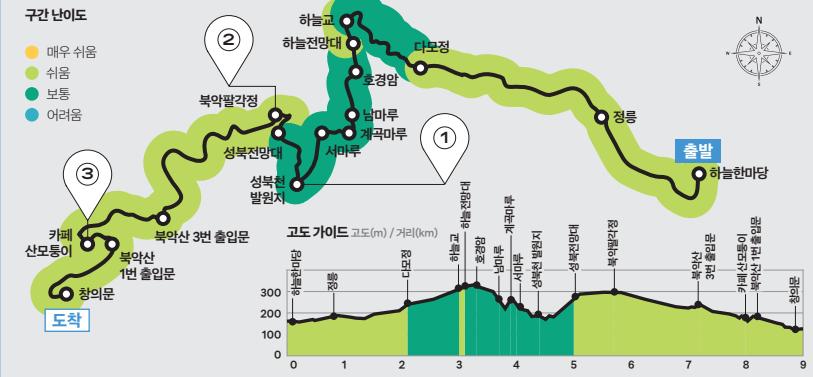
해발 342m에 위치한 한옥형 정자로 북쪽으로는 북한산 보현봉·문수봉·비봉이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남산과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북악산 탐방로나 전망대는 해가 지기 전에 나와야 하지만 북악팔각정은 출입문 제한 시간이 없다.

COURSE MAP

이동경로 하늘한마당 → 정릉 → 다모정 → 하늘교 → 하늘전망대 → 호경암 → 남마루 → 계곡마루 → 서마루 → 성북천 발원지 → 성북전망대 → 북악팔각정 → 북악산 3번 출입문 → 카페 산모퉁이 → 북악산 1번 출입문 → 창의문

구간 난이도

- 매우 쉬움
- 쉬움
- 보통
- 어려움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이동 거리가 9km 넘고 경사가 심한 편이다. 또한 호경암에서 성북천 발원지로 내려가는 길과 성북천 발원지에서 북악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길도 가파르니 주의하자.

휴식 정보

계곡마루 쉼터는 삼무(三無), 삼청(三青) 지역으로 꼽힌다. 전파와 소음, 걱정이 없어 삼무라고 하고, 산·물·마음이 푸르러 삼청이라 한다.

찾아가기

-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삼선교·성북문화원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성북이번을 타고 구민회관 201동앞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268m 거리 걸으면 하늘한마당에 닿는다.

MORE INFO

- 하산 시 창의문에 도착하면 부암동에서 다시 인왕산돌레길을 걸을 수 있다. 인왕산 2코스인 한양도성 코스와 인왕산 4코스인 부암동 코스로 이어진다.



③ 카페 산모퉁이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촬영지로 유명한 북악산 내 카페다. 북악팔각정에서 창의문으로 내려오다가 북악산 1번 출입문 뒷마당에 자리해 있다. 저녁에 방문하면 조명이 켜진 색다른 분위기의 북악산 성곽길을 볼 수 있다.



도심 속 비밀 정원

백사실계곡- 성균관 코스

백사실계곡은 1급수에만 산다는 도롱뇽을 비롯해 벼들치, 가재 등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고 있을 만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다. 곳곳이 개발제한구역인 덕분에 청정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도심 속 비밀 정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좁은 오솔길 사이로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풍광을 감상해 보자.



총 이동 거리 6.14km



총 소요 시간 2시간



난이도 보통



SPOT



세검정



백사실계곡

세검정은 계곡 사이로 모래가 섞인 맑은 물이 흐르고 풍광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1505년 연산군은 세검정에 탕춘대를 세우고 궁녀들과 어울렸다고 전한다. 영조는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벗 삼아 활쏘기 대회를 주관하고 무관을 뽑기도 했다.

사적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선시대의 별장터로, 당시 백석동천이라 불렸다. 백석은 백악(북악산)을, 동천은 신선이 살만한 경치 좋은 곳을 뜻한다. 1급수 지표증인 도롱뇽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추사 김정희 별서터 등 다양한 문화 사적을 만날 수 있다.

이동경로 세검정 → 현통사 → 백사실계곡 별서터 → 북악산 4번 출입문 → 북악팔각정 → 성복천 발원지 → 숙정문안내소 → 와룡공원 → 성균관대 후문 → 명륜당

구간 난이도

- 매우 쉬움
- 쉬움
- 보통
- 어려움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백사실계곡에서 숲속 오솔길, 북악팔각정까지는 포장도로 옆 산책로를 통해 오를 수 있는데 경사가 완만해 산책하듯 걸을 수 있다.

휴식 정보

- 백사실계곡 별서터의 들계단에 앉아 울창한 숲 그늘 아래에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산행의 에너지를 충전해 보자.

찾아가기

-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시내버스 1020, 1711, 7016, 7018, 7022, 7212번을 타고 상명대입구-세검정교회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MORE INFO

- 명륜당 주변은 볼거리가 풍부하다. 특히 매년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은행나무가 있다. 공식 명칭은 '서울 문묘 은행나무'로, 주변을 노랗게 물들일 정도로 매우 크다. 명륜당 앞에서 보는 모습도 예쁘지만, 대성전 뒤쪽이 포토존이다.



명륜당

명륜당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공간의 중심이 되는 강당 건물이다. 왕이 이곳에 들러 유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실력을 시험하기도 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문 오른쪽에 자리해 있다.

마음을 채워주는 힐링 로드

북악산에서 하산할 때는 부암동 쪽으로 내려와 성북동에서 머문다면 하루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곱씹으며 문인들이 머물렀던 장소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운치 있는 한옥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다.



북악산 1박 2일 코스 안내

PM 12:00 하산한 뒤 자하순만두에서 즐기는 점심 - 7.1km (차량 18분 이동) → **PM 2:00** 수연산방에서 따뜻한 전통차와 함께 사색을 - 1.4km (차량 4분 이동) → **PM 4:00** 한국기구박물관에서 아름다운 전통 고가구 감상 - 1.2km (차량 3분 이동) → **PM 6:00** 삼청각에서 고유의 반가 요리로 정갈한 저녁 식사 - 2.8km (차량 11분 이동) → **PM 8:00** 락고재에서 하루의 마무리

정연재에서 누리는 고즈넉한 풍경

지친 심신을 달래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길상사 템플스테이

변잡한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달을 수 있는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절이다. 누구에게나 참선, 사색, 수행의 공간을 개방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함께 영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 두 시간의 영상으로도 마음이 차분하게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용한 산사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 서울 성북구 선찰로5길 68 ☎ 02-3672-5945



문인의 기운이 깃든 고즈넉한 공간을 둘러보는 여정



우리옛돌박물관

북악산과 한양도성 사이 성복동 언덕에 자리 잡은 우리옛돌박물관은 1만8182m²(5500평)에 이르는 부지에 석조 유물 12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환수유물관에서는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헐값에 팔려나갔던 문인석을 살펴볼 수 있다. 문인석은 장군석, 석수와 함께 능묘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조각으로 형상만으로도 위엄이 느껴진다. 2023년 실내전시관이 뮤지엄 웨이브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현대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13길 66 ☎ 02-986-1001
○ 화~금 10:00~17:00, 토, 일요일, 공휴일 10:00~18:00(17시 입장 마감), 월요일 휴관



성복동이종석별장

이 별장은 한국 근대 문인 이태준, 정지옹, 이효석, 이은상 등이 모여 문학 활동을 했던 곳으로도 전해진다. 성복동 서쪽 골짜기를 따라 걷다 보면 담장이 십자(+) 모양으로 뚫려 바람이 쉽게 오가는 이종석 별장에 닿게 된다. 이종석은 조선 전기 수상 교통의 중심지였던 마포나루에서 새우젓을 팔며 부를 축적해 온 상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별장답게 화려한 팔작기와지붕과 섬세한 풍경 등이 인상적이다.

📍 서울 종로구 계동길 37 ☎ 02-2148-4161
○ 2025년도 3월부터 통제시간제 도입 - 북촌로 11길 일대 10:00~17:00(17시 이후 약 10분 원의 과태료 부과)



수연산방

소설가 이태준이 집필한 『문장강화』는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문인이 글 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읽는 고전으로 꼽힌다. 상현 이태준은 이태준이 1933년부터 1946년까지 머물며 『달밤』, 『돌다리』, 『황진이』 등을 탈고한 곳이다. 문학 단체 구인회의 터전이기도 했던 이곳이 1998년 수연산방이라는 찻집으로 탈바꿈했다. 찻집의 이름은 가옥의 당호에서 비롯됐으며 '여러 사람이 모여 산속의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학의 정취가 물씬한 마루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입 먹어보는 건 어떨까.

📍 서울 성북구 성복로 26길 8 ☎ 02-764-1736
○ 수~금요일 11:30~17:50, 토·일요일 11:30~19:40, 월화요일 12:00~18:00(커피만 주문 가능)



북악팔각정

북악산 능선을 따라 동북으로 뻗은 19km 길이의 도로를 여유롭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해발 342m 지점 북악팔각정에 이른다. 이곳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화무쌍한 풍광을 연출하는데 특히 밤이 되면 불빛이 가득한 사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날이 너무 덥거나 추울 경우 전망대 중앙에 자리한 하늘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요리를 하자.

📍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267
● 하늘레스토랑 02-725-6602
○ 하늘레스토랑-매일 11:30~23:30



만해 한용운 심우장

1933년에 지어진 심우장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를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심우장이 5칸 남짓에 불과하고 어느 집과 달리 소박하게 구성된 것도 한용운의 윤곡은 성정을 반영한다. 서재로 사용되었던 온돌방에 걸린 심우장이라 적힌 현판은 함께 독립운동에 힘쓴 서예가 오세창이 쓴 것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불교 설화에서 차용했다.

📍 서울 성북구 성북로 29길 24 ☎ 02-2241-2652
○ 매일 09:00~18:00

EAT

세월과 신념이 빛어낸 맛과 향을 따라서



자하손만두

자하손만두는 부암동 토박이인 박혜경 대표가 살던 집을 증축해 만든 곳으로 1993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다. 대표 메뉴인 떡만둣국은 시금차·당근·비트로 곱게 색을 낸 만둣피가 일품으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선정됐다. 이곳은 매년 음력 1월 충청도에서 쑨 메주를 씻어 말린 뒤 좋은 소금물을 풀어 장을 담근다. 이처럼 정성과 시간을 들인 장은 한결 깊은 맛매를 자랑한다.

☎ 서울 종로구 백석동길 12 ☎ 02-379-2648

◎화~일요일 11:00~21:00(20:00 라스트오더),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계열사

치킨 본연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계열사.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면 강원도에서 재배한 수미김자를 통으로 튀겨 함께 내놓는다. 치킨을 찍어 먹는 소금 역시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 6년 이상 묵은 신안 소금은 달달 봄아 유해 물질을 날린다. 이렇게 볶아낸 소금은 굽은 입자가 그대로 살아 있는 데다가 짜지만 달고 고소한 맛을 내 치킨의 풍미를 배가한다. 다음으로 손꼽히는 메뉴는 골뱅이 국수. 골뱅이 무침에 사과, 배, 해초류를 듬뿍 넣어 시원한 향이 난다. 국수를 비비지 않고 따로 먹는 것이 특징인데 심심한 듯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 서울 종로구 백석동길 7 ☎ 02-391-3566

◎화~토요일 12:00~22:30, 일요일 12:00~22:00, 월요일 휴무

STAY

북악산을 관망하며 산세를 닮은 곳에서 하룻밤을 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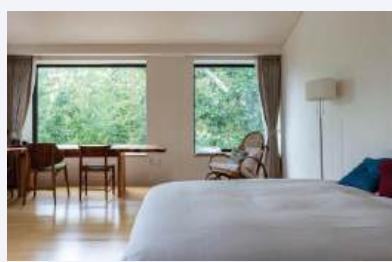


락고재

락고재는 130년 역사를 지닌 한옥을 무형문화재 정영진 웅이 개조한 곳이다. 마당을 중심으로 정자, 연못, 대청마루 등이 예스럽게 자리해 마치 과거를 거니는 듯하다. 객실은 안방, 건넌방, 정자방, 별채, 대문채로 나뉘는데 그중 정자방에서 디도를 즐기며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서울 종로구 가회동 218 ☎ 02-742-341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보안스테이

1942년부터 약 60년간 자리를 지키며 문인들의 둥지가 되었던 보안여관. 서정주, 김동리 등이 머물렀던 이곳은 <시인부락>이라는 문학동인지가 탄생한 한국문학의 산실이었다. 현재는 보안여관의 전통을 이어받아 보안1942 건물 3~4층에 보안스테이가 들어서 있다. 보안스테이는 퀼처 노마드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임시 거주의 형태를 구현해 낸다. 객실 내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대조를 이루는 북악산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곳곳이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가구로 꾸며져 예술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 서울 종로구 효자로 33 ☎ 02-720-8409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정연재

삼청동의 오래된 주택가 사이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정연재. 이곳은 1938년에 지어졌고 2019년 5월에 재단장을 마쳤다. 정연재라는 이름은 편안할 정, 인연 연, 집 재를 사용해 ‘이곳에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기를 기도한다’는 주인장의 마음을 담고 있다. 독채로 운영되어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기 좋으며 객실 내에 비치된 다기 세트가 대화에 운치를 더한다. 참고로 정연재의 시그니처인 노천탕은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동파의 위험으로 사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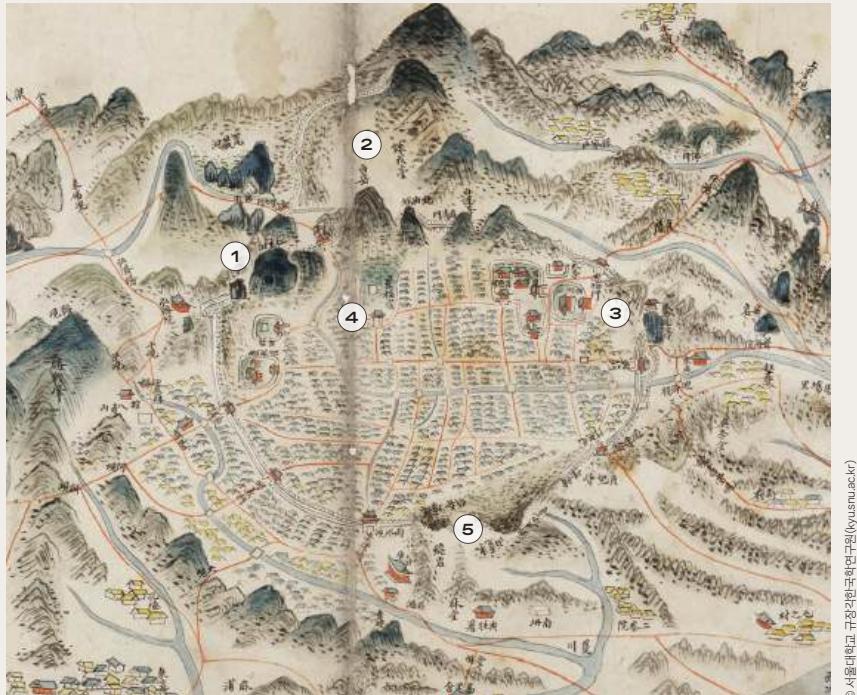
☎ 서울 종로구 삼청로 7길 19-14 ☎ 010-6837-2044

◎체크인 16:00, 체크아웃 12:00

풍수지리로 보는 북악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뻗어 내린 백두대간의 기운을 북악산에서 경복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북악산을 뒤로한 경복궁의 궁궐 배치는 하늘로부터 받은 왕권임을 상징하며, 이러한 사상은 조선왕조 600년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다.

글. 김우선(백두대간인문학연구소 소장)



동국여도(東國輿圖) 도성도

1. 인왕산
2. 북악산(백악산)
3. 낙산
4. 경복궁
5. 남산(독멱산)

백두대간에 흐르는 정기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기의 흐름을 중시해 '기운이 흐르는 길'을 산줄기라고 여겼다. 백두산은 그 기운의 시발점으로 백두산에서 흘러내려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진 것을 백두대간이라 부르고, 이 척량 산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기가 흐른다고 여겼다.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진 백두대간 가운데에서도 한북정맥은 금강산 북쪽 분수령에서 갈라져 나와 한강 북쪽의 산들을 아우른다. 도봉산, 북한산을 지나 북악 멧부리에 백두산의 맥맥한 기운인 양 솟구쳐 수도 서울의 진산으로서 그 위용을 뽐낸다. 이러한 기를 끊기 위해 일제 침략기에 일본은 풍수지리를 역으로 이용해 우리 산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다. 북악산에 있는 촛대바위는 일제가 박은 쇠말뚝을 빼내고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촛대를 세운 이후 촛대바위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듯 기의 흐름과 땅의 형세를 인간의 길흉화복과 연결해 설명하는 풍수지리는 한국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중요한 사상 중 하나다.

풍수지리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지켜주는 사신사를 세운다. 사신사는 북현무, 남주자, 좌청룡, 우백호로 불린다. 북악산은 사신사 중 하나다. 조선시대 도성인 서울은 안과 바깥으로 각각 4개의 산인 내사산(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과 외사산(북한산, 덕양산, 관악산, 용마산)에 둘러싸여 있다. 북악산은 조선시대에는 주로 백악산으로 불렸고,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 하여 면악으로도 불렸다. 사적 제10호 및 명승 제67호로도 지정되었다.

웅장하고 뛰어난 서울의 진산, 북악산

경복궁은 북악산이 있음으로 해서 더 웅장하고 뛰어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성계의 스승이자 불교계를 대표하는 무학대사와 성리학을 추종하는 정도전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정도전이 승리를 거두며 경복궁은 한양도성의 축성과 경복궁 전각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성리학적 해석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경복궁을 정면으로 보면 북악산과 근정전, 광화문이 보이는데, 우뚝 솟은 궁궐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산은 사라지고, 광화문과 근정전만 보이는 절묘한 배치를 보인다. 이는 하늘에서 내린 모든 권력이 북악산을 통해 임금이 있는 대궐로 이어진다는 정치철학을 철저하게 적용한 구도다. 백두대간 한북정맥으로 이어지는 산의 웅장함에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궁궐의 웅장함으로 바뀌는 시점의 변화는 왕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며 그러한 상징성을 건축적인 시각으로 풀어내었다. 이러한 배치는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화기를 누르기 위해 등장한 해태와 남지

해치는 풍수지리의 비보(裨補)가 적용된 사례다. 조선시대에 경복궁에서는 크고 작은 불이 자주 일어났다. 사람들은 풍수지리적으로 외사산 중 하나인 관악산의 화기(火氣) 때문이라 했다.

화기를 누르기 위해 조정에서는 광화문 앞에 위치한 육조거리의 사헌부 앞에 해태를 세웠으며, 송례문 부근에는 남지라는 연못을 조성했다. 해치라고 불리는 해태는 상상 속 동물로 불을 다스리는 물의 신을 상징한다. 현재 해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헌부 앞에서 광화문 양옆으로 옮겨져 자리하고 있다.

상상의 동물, 해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한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로 간주되어 궁궐 등의 건축물에 장식되었다.



관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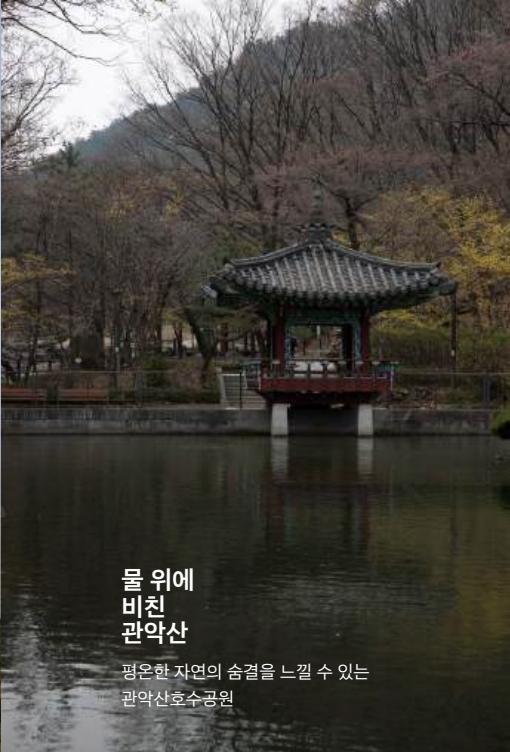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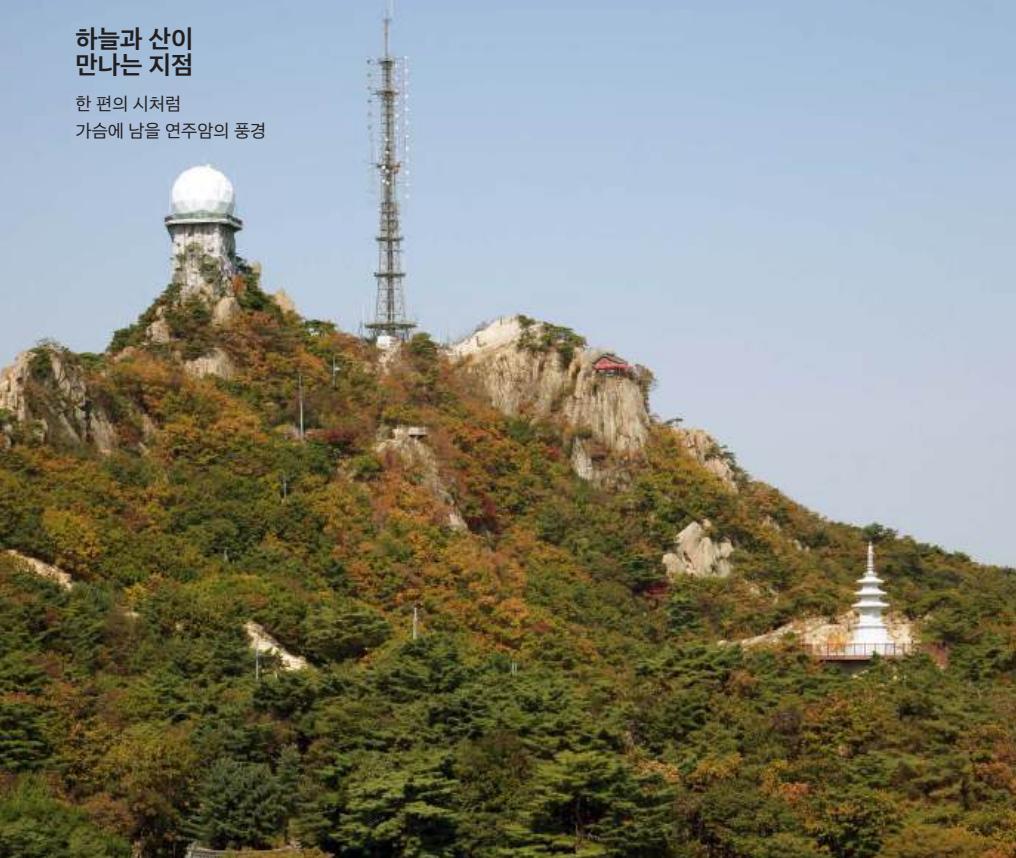
활력 넘치는 도심 속 에너지 충전소

관악산은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산이다. 바위 능선을 오르며 자연의 거침없는 힘을 느끼고, 정상에서 시원한 전망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기며 자신의 에너지와 속도에 맞는 산행을 경험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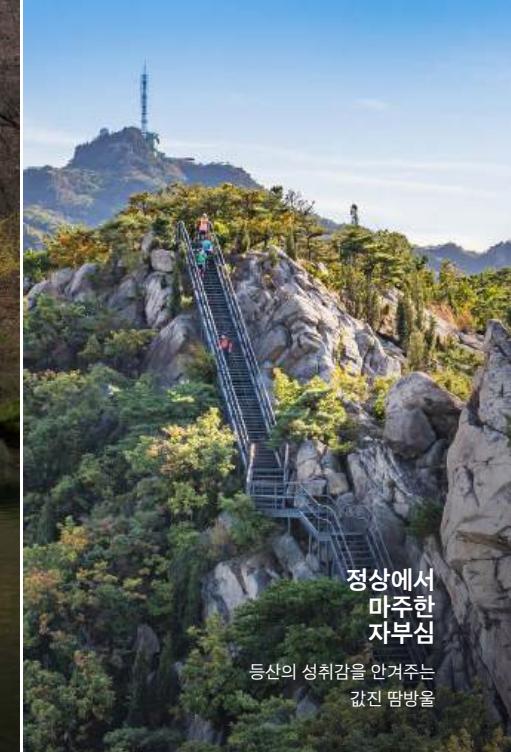
하늘과 산이 만나는 지점

한 편의 시처럼
가슴에 남을 연주암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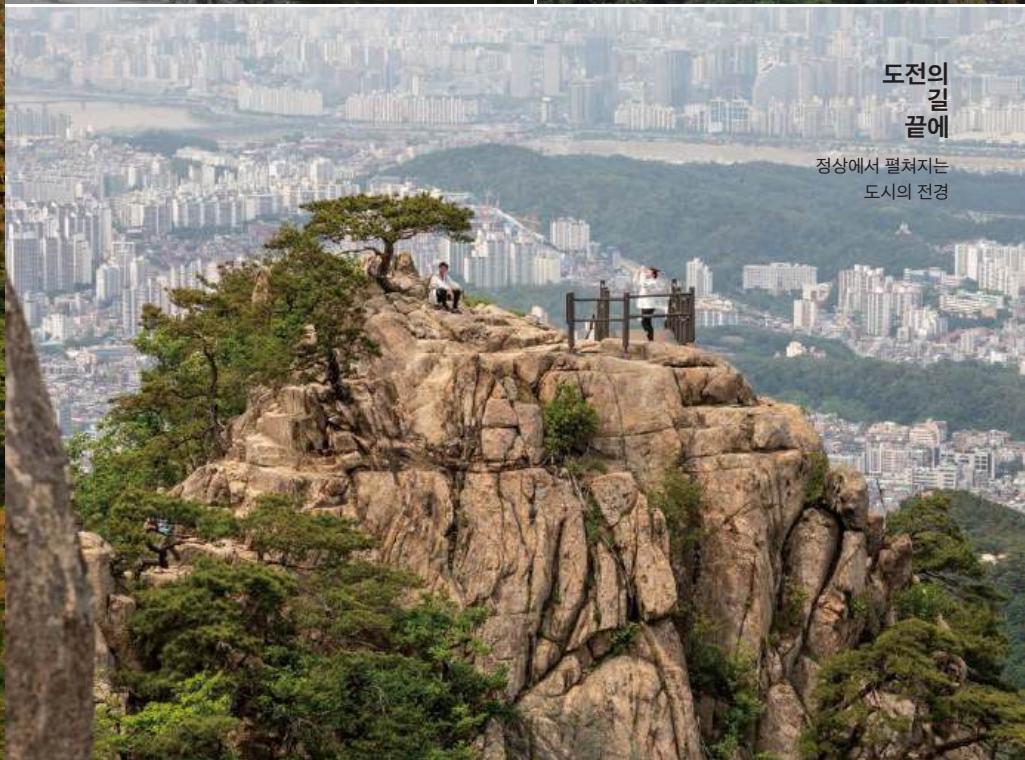
물 위에
비친
관악산

평온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관악산호수공원



정상에서
마주한
자부심

등산의 성취감을 안겨주는
값진 땀방울



도전의
길
끝에

정상에서 펼쳐지는
도시의 전경

“관악산은 무난한 코스 같으면서도 정상을 오르는 과정이 쉽지 않은 구간이 많아 그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계절에 따라, 동행자에 따라 그 느낌이 다릅니다. 관악산을 오르는 코스는 다양하면서도 편리해 등산객들에겐 축복입니다. 복장만 갖추고 출발하면 됩니다.”

- 김진현(작가)
『대한민국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이야기』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박정아

고요 속에 느껴지는 생동감

서울 남서부의 풍광을 웅장하게 감싸고 있는 관악산(冠岳山)은 예로부터 등산 애호가들은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친근한 등산 명소다. 관악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모양이 삼갓(冠)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으며, 이름처럼 바위 봉우리들이 위엄 있게 솟아 있어 남성적인 강인한 인상을 풍긴다.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깊고 활력 넘치는 산세를 자랑해 등산객들에겐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 자연의 품에 안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정상인 연주대에 오르면 사방으로 펼쳐진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이 되면 하늘과 땅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조용한 고요 속에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관악산에선 서울 남부의 여러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 감동을 더한다.

1968년에 산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관악산은 등산로가 다양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뒷길에서 시작하는 코스는 숲길이 잘 조성돼 있고, 중턱의 계곡과 폭포를 지나면 시원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많은 이들이 찾는다. 암벽 등반을 위한 코스도 있어 도전적인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느긋한 산책부터 도전적인 암벽 등반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숲길을 걸으며 관악산이 품은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해 보자.

관악산 8코스 하이킹 맵

고도 629m의 관악산은 빼어난 암벽과 협곡이 어우러진 수려한 산세를 자랑한다. 도심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험준한 코스도 있어 도전적인 산행을 원하는 등산객에게도 매력적인 산이다. 정상의 목표에 얹매이지 않고 느긋하게 걷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둘레길 구간도 인기가 높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 긴 능선을 걸으며 넓게 펼쳐진 도시 전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것 또한 관악산이 주는 특별한 즐거움 중 하나다.

COURSE 01.

연주대 A코스 (p.110)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도림천계곡→연주대 정상

COURSE 05.

돌산 코스 (p.118)

관악산역→물레방아→돌산 정상

COURSE 02.

연주대 B 계곡 코스 (p.112)

관악산역→제4야영장→공학관(상)→
연주샘→제3갈딱고개전망대→
제3갈딱고개→연주대 정상

COURSE 03.

자운암능선 코스 (p.114)

관악산역→제4야영장→공학관(상)→
자운암능선→자운암 국기봉→
연주대 정상

COURSE 04.

학바위능선 코스 (p.116)

관악산역→제4야영장→
무네이고개→학바위능선→
연주암→연주대

COURSE 06.

삼성산 코스 (p.120)

관악산역→제1광장→제2광장→
국기봉→삼성산 정상

COURSE 07.

도림천(신림)계곡 코스 (p.122)

관악산역→횡토길→관악산모험숲/
물놀이장→관악산호수공원→
무장애숲길→옥류샘→제4야영장→
수중동산→삼거리약수터

COURSE 08.

서울둘레길 12코스 (p.124)

관악산역→물레방아→관악산 계곡
캠핑숲→윤길묘→호암사→호암산
잣나무산림욕장→호암산 폭포→호암산
숲길공원→석수역



COURSE 01.

청량한 계곡 속으로

연주대 A 코스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에 오르는 가장 짧고 쉬운 코스로, 등산 초보자들도 도전해볼 만하다. 도림천계곡을 따라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꾸준히 오르다 보면 연주대에 이르러 서울의 탁 트인 전경과 마주할 수 있다.

총 이동 거리 2km

총 소요 시간 1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SPOT



도림천계곡



연주암

관악산 동쪽 기슭에서 시작해 도림천으로 이어지는 계곡으로,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사계절 내내 흐른다.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어 시원한 그늘과 함께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 한적한 산책이나 가벼운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관악산 최고봉인 연주대 남쪽 지점에 있다. 암벽과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 속에서 관악산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연주암은 조선 태종 11년(1411년)에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현재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고 전해진다.

COURSE MAP

이동경로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
도림천계곡 → 연주대 정상



구간 난이도

- 매우 쉬움
- 쉬움
- 보통
- 어려움

고도 가이드 고도(m) / 거리(km)



연주대

해발 629m의 연주대는 연주암 북쪽 꼭대기 절벽에 솟아 있는 관악산 최고봉이다. 신라 문무왕 17년(667년)에 의상대사가 좌선 공부를 했다고 전해지며, 조선 태조 원년(1392년)에 중건됐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코스 중간중간 쉼터와 벤치가 마련돼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한 길과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상 부근의 철계단 구간은 좁고 가파르니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자.

휴식 정보

- 도림천계곡 중간지점에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평평한 바위가 많다.

찾아가기

-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200m 정도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온다. 5513번 버스를 타고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바로 옆에 등산로 표지판이 있다.

MORE INFO

- 연주대(戀主臺)라는 이름은 주군(主君)인 임금을 그리워하는(戀) 곳으로 풀이된다. 이름과 관련된 전설로 고려의 남은 신하 강득룡, 서건, 남을진 등이 이곳에 올라 옛 왕조와 충신들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COURSE 02.

숲길, 계곡, 협곡이
어우러진 종합선물세트

연주대 B 계곡 코스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파노라마뷰가 펼쳐지는 연주대까지 오를 수 있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다.
평탄한 길과 가파른 경사가 어우러져 다양한 지형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바위와 작은 폭포가 시각적 즐거움을 더한다.

총 이동 거리 4.7km

총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SPOT



① 관악산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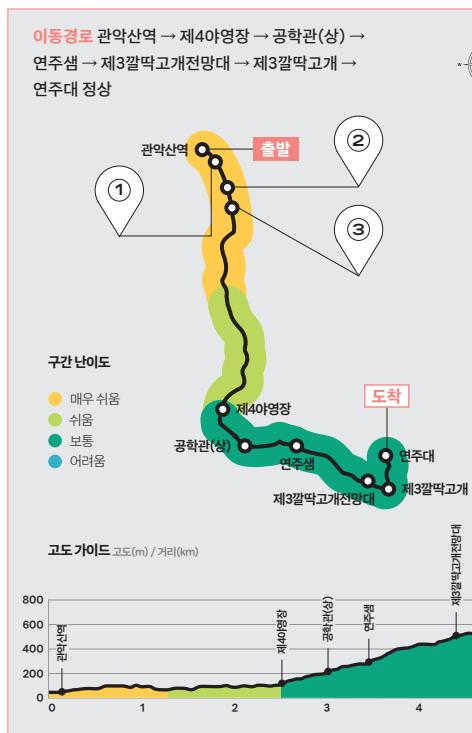


② 관악산야외식물원

관악산자연공원 일주문은 관악산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산행 코스의 시작점으로, 1968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다. 치유 산책, 명상, 걷기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관악산공원 초입에 자리한 자연학습 공간으로, 약 1,000m² 면적에 19종의 농작물과 1,630본의 식물이 식재돼 있다. 장미원, 관목원, 철쭉동산 등 테마별로 구성돼 있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COURSE MAP



③ 관악산호수공원

제1광장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 관악산호수공원은 산책로와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다. 정자, 분수, 수변무대 등이 설치돼 있어 등산객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숲속 생태체험관과 야외식물원이 조성돼 있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초반은 평坦한 아스팔트 길이 이어져 산책하기 좋지만, 돌길 구간과 계단이 많아 무릎에 다소 무리를 줄 수 있다. 제3깔딱고개 이후 연주대 정상 직전에 암릉 구간과 우회길로 나뉘는데 체력이 약하거나 등산 초보라면 우회길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휴식 정보

- 코스 내에 중간 쉼터가 요소요소에 배치돼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코스 중반부의 제4야영장 부근과 연주암에 화장실이 있다.

찾아가기

-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등산로 입구다. '관악산공원'이라고 쓰인 대형 일주문이 반겨준다.

MORE INFO

- 관악산공원 내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부담 없이 산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이 조성돼 있다. 산책하듯 숲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숲길과 지그재그형 오르막길을 따라 오를 수 있는 등반형 숲길 2개의 코스가 있다.



COURSE 03.

능선 위로 펼쳐진
비경을 따라

자운암능선 코스

자운암능선 코스는 가파른 암릉 구간이 이어져 스릴 넘치는 산행의 묘미를 선사하는 도전적인 코스다. 오르는 동안 삼성산, 국기봉, 장군봉 등 주변 봉우리들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고, 암릉을 넘을 때마다 서울 시내의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총 이동 거리 4.3km

총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어려움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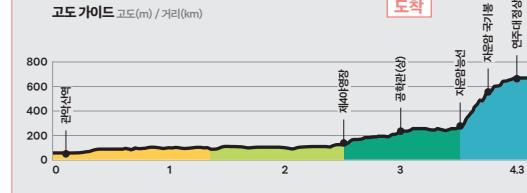
자운암

서울대학교 신공학관 뒤 골짜기 중턱에 자리한 자운암은 무학대사가 조선 태조 5년(1396년)에 창건한 절이다. 남허 스님이 남긴 자운암 기록에는 영조 13년(1734년)에 다시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성종이 어머니를 위해 만든 위패가 아직도 전해오고 있다.

자운암 능선의 암릉을 따라가다 보면 등장하는 침목의얼굴 바위는 특이한 형상으로 유명하다. 마치 고요히 입을 다문 얼굴처럼 보이는데, 그 모습이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COURSE MAP

이동경로 관악산역 → 제4야영장 → 공학관(상) →
자운암능선 → 자운암 국기봉 → 연주대 정상



자운암 국기봉

자운암 능선에 자리한 특별한 명소로, 이곳에 오르면 압도적인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큰 암석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뒤로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어 아찔한 느낌을 준다. 이곳에 오르려면 상당한 담력과 체력이 필요하다.

INFORMATION

하이킹 정보

- 곳곳에 급경사가 있고 철제난간과 빗줄을 잡고 오르는 암벽 구간이 3곳 정도 있어 등산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곳곳에 안전 시설과 우회로가 마련돼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

휴식 정보

- 벤치 등이 설치된 쉼터는 없으나 능선을 오르는 동안 앉아서 쉴 수 있는 평평한 바위가 많아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암릉 시작 구간 직전인 제4야영장에서는 피크닉도 가능하다.

찾아가기

-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등산로로 진입할 수 있다.

MORE INFO

- 자운암능선 코스는 포토 스팟이 많기로 유명하다. 삼성산, 장군봉 등 주변 봉우리들의 장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고, 특히 자운암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에서는 역동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하늘 가까이 펼쳐진
자연의 웅장함

학바위능선 코스

코스 초입의 맑은 계곡은 여름철 시원한 휴식 장소로 인기가 높으며, 무너미고개에서 학바위능선까지 이어지는 험준한 바위 지형은 등산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학바위능선과 국기봉에 오르면 남산, 여의도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가 한눈에 들어온다.

총 이동 거리 6km | 총 소요 시간 3시간 30분 | 난이도 어려움



SPOT



제4야영장



무너미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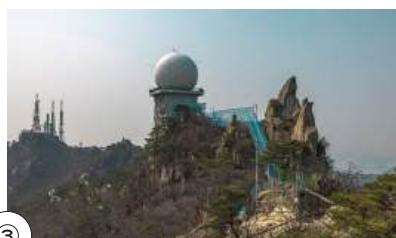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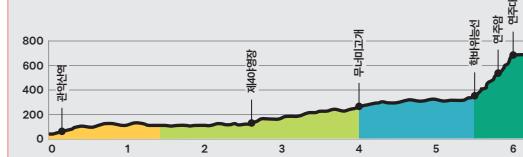
관악산 호수공원에서 연주대로 이어지는 등산로 중간에 자리한 제4야영장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자연 휴양 공간이다. 곳곳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등산객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악산과 삼성산이 연결되는 꼭짓점이자 관악구와 안양을 이어주는 곳이다. 고개 양쪽으로 수려한 계곡이 있어 여름철 산행 코스로 좋다. 안양 쪽으로는 관악수목원이 자리해 있어 가족 단위 생태 산행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이동경로 관악산역 → 제4야영장 → 무너미고개 → 학바위능선 → 연주암 → 연주대



고도 가이드 고도(m) / 거리(km)



관악산 기상관측소

학바위 정상에서 조망이 가능한 기상 관측 시설로, 서울, 과천, 의왕, 안양 등 주변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기상 관측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하이킹 정보

- 초반은 완만한 숲길과 야영장 구간이 이어져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지만, 학바위능선에 접어들면서부터 바위 구간과 좁은 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등산화 착용이 필수다. 좁은 비탈길에서는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자.

휴식 정보

- 제4야영장은 초반 휴식 장소로 적합하며, 무너미고개에서도 잠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 연주대로 오르기 전 연주암에서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를 즐기면서 쉬어가길 권한다.

찾아가기

-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등산로로 진입할 수 있다.

MORE INFO

- 학바위능선 코스는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경관이 일품이다. 특히 봄철에는 붉은병꽃나무, 팥배나무꽃 등 희귀한 야생화가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며, 가을에는 학바위능선 아래로 펼쳐지는 팔봉능선과 거북바위능선의 단풍이 감탄을 자아낸다.

소박한 길 끝에서 만나는
특별한 풍경

돌산 코스



SPOT



물레방아



돌산

관악산공원 입구에서 평탄한 포장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물레방아는 본격적인 산행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한겨울에는 얼어 있는 물레방아를 볼 수도 있다. 돌산으로 가려면 물레방아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관악산의 주요 봉우리 중 하나로, 바위가 많이 분포해 있어 등산객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다. 정상에선 서울대와 관악산의 전체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탁월한 전망을 제공하며, 특히 정상에 서 있는 소나무가 인상적이다.

이동경로 관악산역 → 물레방아 → 돌산 정상



돌산 국기봉

관악산역 출발 기준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국기봉이다. 해발 239m로 높진 않지만 정상에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봄에는 정상 부근에 핀 철쭉과 태극기를 함께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하이킹 정보

- 물레방아를 지나 돌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편안한 흙길과 적당한 경사의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산 정상 주변은 약간의 바위 구간이 있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휴식 정보

- 물레방아 주변은 쉼터로 활용하기 좋으며, 벤치와 음수대가 마련돼 있다. 돌산 정상에서는 바위 위에 앉아 도심을 내려다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찾아가기

- 관악산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등산로로 진입할 수 있다. 10분 정도 걸으면 물레방아 갈림길이 나오고 여기에서 오른쪽 길로 진입하면 된다.

MORE INFO

- 관악산, 삼성산, 호암산 일대에는 총 11개의 국기봉이 설치돼 있다. 언젠가부터 등산객들 사이에서 국기봉을 종주하는 코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관악산역에서 시작해 사당역에서 마무리하는 20km 이상의 코스여서 중급 이상 등산객들에게 추천한다.

관악산 속 또 다른 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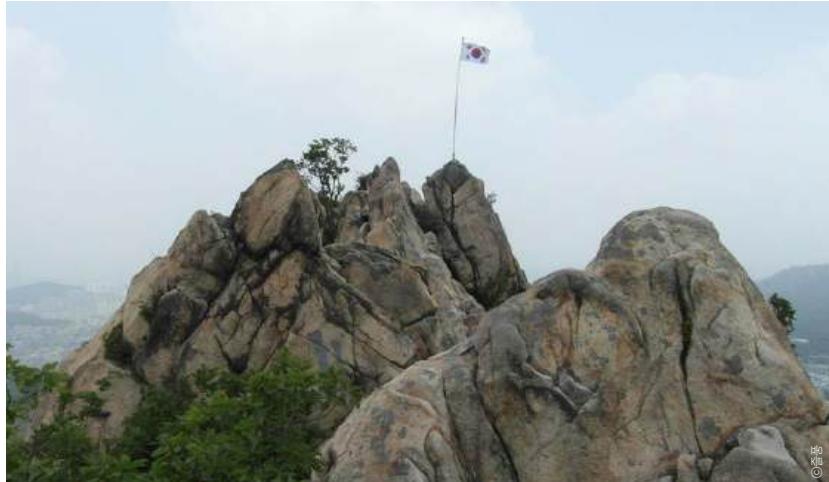
삼성산 코스

관악산과 삼성산의 주요 봉우리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코스다. 국기봉에서 삼성산 정상까지 거리가 비교적 짧아 무난한 산행을 즐길 수 있으며, 국기봉과 삼성산 정상에서는 서울 도심과 주변 산들의 아름다운 전망이 한눈에 펼쳐진다.

총 이동 거리 4.7km

총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SPOT



①

삼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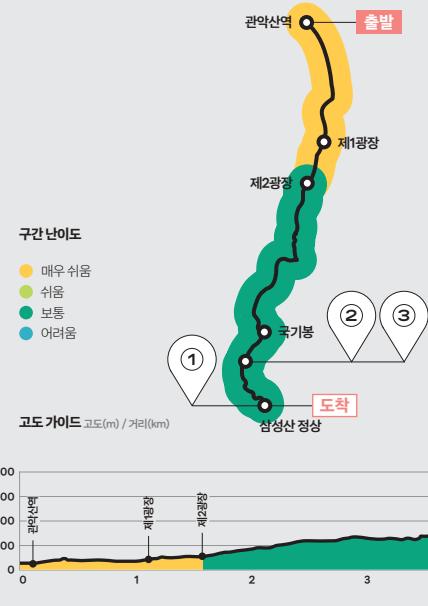
②

삼막사

서울시 관악구와 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 걸쳐 있는 해발 481m의 삼성산은 많은 역사 속 이야기와 문화예술을 품은 산이다. 산중에는 삼막사를 비롯한 사찰과 삼막사 마애삼존불, 남녀근석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로, 삼성산 중턱에 자리해 있다. 삼막사라는 이름은 신라 문무왕 17년(677년) 원효·의상·윤필 세 명의 스님이 암자를 짓고 수도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천불전과 육관음전, 명부전, 망해루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경로 관악산역 → 제1광장 → 제2광장 →
국기봉 → 삼성산 정상



③

삼막사 마애삼존불

삼성산 중턱에 있는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삼막사 대웅전 뒤쪽 자연 암벽에 부조한 삼존불로, 경기도 문화유산이다. 영조 39년(1763년) 조성된 치성광여래마애불의 귀중한 예로서 조선 후기 미술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

하이킹 정보

- 삼성산은 해발 481m의 낮은 산이고 편안한 흙길이 많지만, 국기봉으로 향하는 길부터는 가파른 경사가 나타나 본격적인 등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곳곳에 암릉이 있어 등산 초보자들은 일부 구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휴식 정보

- 제1광장에 화장실과 벤치가 있어 간단한 간식과 물을 섭취하며 쉬어갈 수 있다. 국기봉에 도착한 후에는 풍경을 감상하며 체력을 보충할 시간을 가지길 권장한다.

찾아가기

- 제2광장에서 왼쪽으로 가면 무장애숲길, 오른쪽으로 가면 삼성산 등반길이다.

MORE INFO

- 삼막사까지는 사찰 관계자나 사전에 허가된 차량이 아니면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경인고대캠퍼스 쪽 등산로 입구의 삼막사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올라야하는데, 차량이 통행하는 포장도로로 걸으면 약 1시간, 등산로로 오르면 약 30분 소요된다.

도심 속 편안한 힐링 코스

도림천 (신림)계곡 코스

도심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특히 더운 날씨에 이상적인 산책로다. 그늘진 길을 따라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청량감을 더해주며, 물놀이장과 호수공원, 다양한 자연 휴식 공간을 따라 걸으며 피로를 풀 수 있다.

총 이동 거리 3.4km | 총 소요 시간 1시간 15분 | 날이도 쉬움



SPOT



①

황톳길



②

신림계곡

관악구는 2024년 9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원과 녹지 지역 11곳에 조성한 황톳길을 전면 개장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신림계곡지구 황톳길은 계곡과 물놀이장이 인접해 시원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관악산공원 입구 자연학습장 계곡에 조성된 70m 길이의 계곡 물놀이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야외 데크와 천막이 설치돼 있고, 간이 탈의실과 먼지 털이장, 화장실, 안전관리소 등도 갖췄다.

이동경로 관악산역 → 황톳길 → 관악산모험숲/물놀이장 → 관악산호수공원 → 무장애숲길 → 옥류샘 → 제4야영장 → 수중동산 → 삼거리약수터



③

관악산 모험숲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산림 레저 스포츠 체험 공간으로, 서울시가 관악산 내에 조성한 특별한 숲 속 어드벤처다. 연습 코스에서부터 도전적인 코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자연과 교감하며 스릴 넘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하이킹 정보

- 대체로 평坦한 길과 완만한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 무장애숲길 전망대에선 서울 시내 조망도 가능하다.

휴식 정보

- 관악산 계곡 캠핑숲과 제4야영장에서 삼거리약수터로 가는 길 오른편에 비교적 넓은 평상과 피크닉장이 있어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쉬어가기에 좋다.

찾아가기

- 관악산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등산로로 진입할 수 있다.

MORE INFO

- 모험숲의 어드벤처 코스는 1회 80분, 하루에 총 3회차가 진행되며, 신장 139cm 이하, 임산부, 노약자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eyak.seoul.go.kr)을 통해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 두 가지가 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길

서울둘레길 12코스

관악산역에서 시작해 운길묘, 호암사, 호암산 폭포와
숲길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둘레길 12코스는 설화와 풍수,
그리고 역사를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다.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등산객에게도 적합하다.

총 이동 거리 7.3km

총 소요 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SPOT



삼성산성지



호암사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 조선 제2대 교구장 성 앙베르 라우렌시오 범 주교와 성모방 베드로나 신부, 성 샤스탕 야고보 정 신부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다.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고, 등산로와 연결돼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호암사는 조선 건국과 역사를 함께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조선 개국과 더불어 한양에 궁궐(경복궁)이 건립될 때 삼성산의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창건됐다고 전해진다. 불교 수행의 도량이면서도 풍수적으로 상징성을 가진 사찰이다.

이동경로 관악산역 → 물레방아 → 관악산 계곡 캠핑숲 →
윤길묘 → 호암사 → 호암산 잣나무산림욕장 →
호암산 폭포 → 호암산 숲길공원 → 석수역



구간 난이도

- 매우 쉬움
- 쉬움
- 보통
- 어려움



호암산 잣나무산림욕장

호암사 뒤쪽에 자리한 자연 휴양 공간이다.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풍부해 한여름에도 하루살이,
모기 등의 해충이 없어 쾌적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호암산 폭포와 호암늘솔길도 이곳과
연결되어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하이킹 정보

- 관악산역을 출발해 도림천계곡을 지나는 코스 초반에는 자연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후 윤길묘를 지나 호암사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오르막길과 잘 정비된 숲길이 이어져 여유롭게 산행할 수 있다.

휴식 정보

- 이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호암산 폭포가 있어 트레킹 중 휴식을 취하기에 좋고, 잣나무 군락이 형성된 산림욕장에서는 피톤치드 효과를 경험하며 피로를 풀기에 좋다.

찾아가기

- 물레방아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 길로 진입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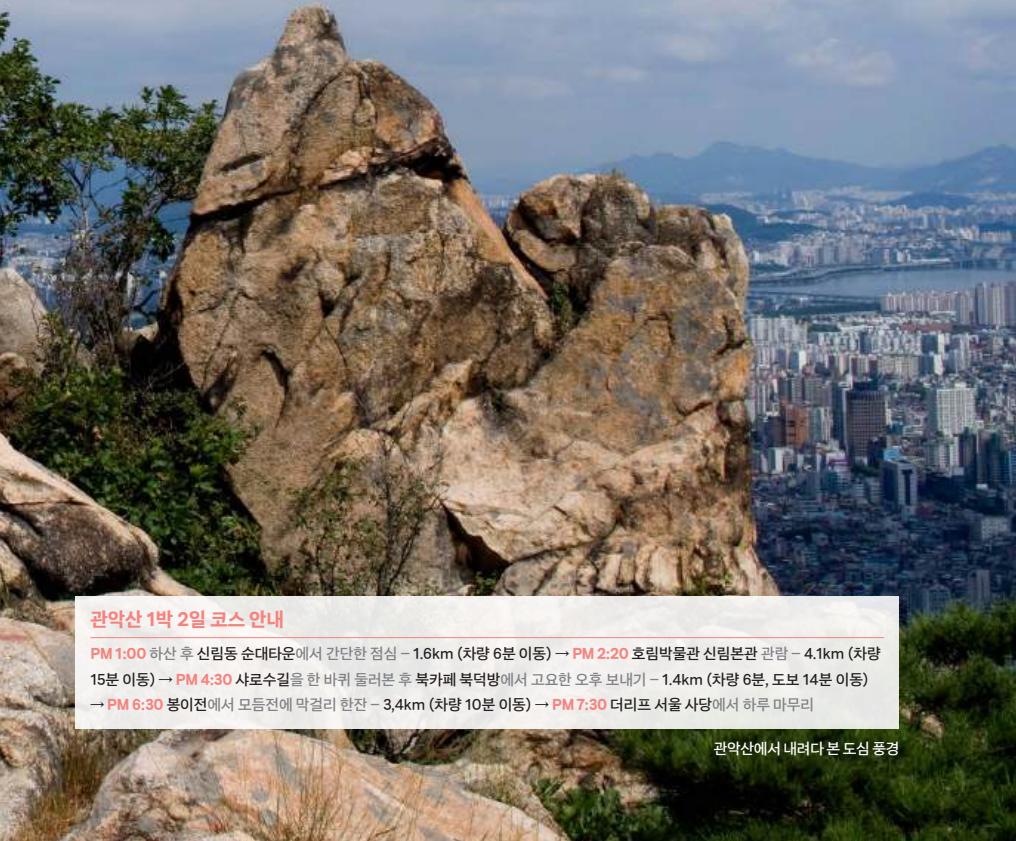
MORE INFO

- 서울 서남권 포교의 중심 도량인 호암사는 매년 가을 서울 시민들을 위한 '호암산 산사문화축제 및 숲길걷기' 축제를 연다. 축하공연과 숲길 걷기, 호암사 사진전, 포토존 체험, 전통문화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DITOR'S PICK

도시의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

관악산은 아기자기한 계곡과 암릉,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로 등산객들을 끌어당긴다. 정상에서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한 후 대학가 주변으로 내려오면 오래된 도시와 젊음의 감성이 교차하는 골목에서 특별한 문화적 감성을 충전하며 등산의 여운을 즐길 수 있다.



관악산 1박 2일 코스 안내

PM 1:00 하산 후 신림동 순대타운에서 간단한 점심 – 1.6km (차량 6분 이동) → PM 2:20 호림박물관 신림본관 관람 – 4.1km (차량 15분 이동) → PM 4:30 사로수길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북카페 북덕방에서 고요한 오후 보내기 – 1.4km (차량 6분, 도보 14분 이동) → PM 6:30 봉이전에서 모듬전에 막걸리 한잔 – 3.4km (차량 10분 이동) → PM 7:30 더리프 서울 사당에서 하루 마무리

관악산에서 내려다 본 도심 풍경

HEALING

고요한 숲속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싶다면

연주암

관악산 최고봉인 연주봉 남쪽 벙랑 위에 자리한 연주암은 관악산의 모든 등산로가 접결하는 곳으로, 신라 문무왕 17년(677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 사찰이다.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곳에서는 잠시나마 속세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텁풀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불과 명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조용히 머무르다 갈 수 있는 휴식형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매주 수요일에는 점심 공양, 스님과의 차담으로 구성된 당일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경기도 과천시 자하동길 63 ☎ 02-504-3234



관악산치유센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자리한 관악산치유센터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숲의 생태를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한 '활기찬 주니어 힐링숲', 건강한 삶을 가꾸고자 하는 성인들을 위한 '관악산 치유숲 꿈리미',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오감 자극 힐링 프로그램 '우정에 치유숲' 등 남녀노소 각각에 맞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서울 관악구 관악산나들길 128 ☎ 070-8869-9500
○ 09:00~18:00, 월요일 휴무



낙성대공원

낙성대공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시간을 거슬러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고려시대 명장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를 중심으로 조성된 역사 공원으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숨은 명소다. 공원 내부에는 장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강감찬 동상과 함께 산책로와 연못, 정자 등이 마련돼 있어 자연의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자작나무, 소나무, 참나무, 사시나무가 어우러진 3km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이 전하는 고요함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 ☎ 02-879-6524

젊음의 활기로 가득한 골목 문화 여행



북덕방

사로수길에 위치한 북덕방은 독서와 사색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는 북카페다. 은은한 조명과 아기자기한 소품, 초록 식물의 조화는 이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책을 읽거나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사색에 잠기기에 좋다. 커피를 비롯한 음료와 함께 간단한 토스트를 맛볼 수 있는 것도 이곳의 매력 중 하나. 201호는 워크인 입장이 가능하고, 202호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휴무와 입장 시간이 시시로 바뀌므로 인스타그램(@bookduckbang)에서 확인하고 가는 걸 권한다.

▶ 서울 관악구 봉천로 544-1 2층 201호 0507-1346-7236
○ 12:00~21:00, 화요일 휴무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역사의 정취가 가득한 석조 건축물 안에서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1905년에 지어진 이곳은 벨기에 영사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역사적인 가치와 함께 미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고 있다. 길게 뻗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자유롭게 배열된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관람객을 위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들이 열린다.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을 배경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 한층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다.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02-2124-8800
○ 평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76년 정조가 설립한 규장각은 조선 왕실의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소로, 학문과 문화를 꽂피우는 중심 역할을 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 자리해 전통 지식 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의 귀중한 고문서와 서적, 다양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담긴 일설록, 승정원일기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특별 전시를 통해서도 깊이 있는 학문적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3동 지하 1층
○ 02-880-6030 ○ 10:00~17: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10월 15일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 휴관

호림박물관 신림본관

도시의 소음을 걷어낸 조용한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한 호림박물관 신림본관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1982년 설립된 이곳은 호림 윤장섭 선생이 수집한 유물을 바탕으로 도자기, 금속공예, 서화 등 1만9,000여 점의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유물 전시뿐 아니라 다채로운 기획전시를 통해서도 한국 미술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계절별로 열리는 특별 전시와 강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한층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02-858-2500
○ 화~금요일 10:00~18:00(토·일·월요일, 법정공휴일, 노동자의 날 휴관, 17:00 입장 마감)



사로수길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서 이어지는 사로수길은 작은 골목길마다 독특한 매력을 품은 신흥 핫플레이스다. '서울대'와 '가로수길'을 결합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곳은 대학가의 활기와 트렌디한 감각이 공존하는 거리로,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맛집과 감성 넘치는 카페,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원래 전통시장이었던 탓에 군데군데 노포가 남아 있는 것도 레트로한 감성을 더한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에도, 일상 속 여유를 찾기에도 제격이다.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길 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 공간이다. 과학놀이체험장, 생태체험학습장, 작품원, 화훼원 등을 포함한 자연관찰원과 함께 21종의 체험전시물을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놀이하듯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인 과학놀이체험장에서는 물을 이용한 체험학습이 인기며, 연구실험동에서는 푸코 전자 등 과학전시물의 원리 이해와 창포, 연꽃 등 아름다운 수생식물을 중앙정원에서 볼 수 있다.

▶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101 02-881-3000
○ 10:00~17:00(월요일, 법정공휴일, 우천시, 동절기(12~3월) 휴관)

EAT

추억을 부르는 분위기 감성 맛집



신림동 순대타운

신림동 일대는 순대와 막창을 즐길 수 있는 맛집들이 모여 있어 순대 마니아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신선한 재료와 비법 양념으로 속을 꽉 채운 이곳의 순대는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식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백순대와 순대곱창, 순대국, 순대볶음 등 메뉴가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점이다. 아식으로 방문하기 좋고, 순대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랠 때에도 그만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로 59길 14



장블리제리 낙성대본점

등산 후 고소한 기름 냄새 입혀진 빈대떡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떠오를다면 들리야 할 곳이 바로 봉이전이다. 오랜 역사와 함께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통의 맛집으로, 빈대떡과 함께 다양한 전통 안주를 즐길 수 있다. 고주전, 뗏잎전, 동태전, 호박전 등 알찬 구성의 모듬전이 인기 메뉴다. 매콤한 골뱅이무침이나 도토리묵을 곁들여면 금상첨화. 프리미엄 막걸리인 해창막걸리를 만나볼 수 있는 점도 이곳을 들리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서울 관악구 봉천로 473-5 1층

○평일 14:00~01:00, 토·일 13:00~01:00

STAY

산행의 피로를 날려줄 도심 속 힐링 공간



더리프 서울 사당

관악산을 오르기 전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좋은 도심형 스파 호텔이다. 호텔 전면 풍유리창으로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반신욕은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호사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스몰 럭셔리', '호캉스'를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인스타그램을 속소로 각광 받고 있다. 속소에서 관악산 등산로 초입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사당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것도 큰 이점이다. 주변에 맛집과 카페가 밀집해 있어 산행 후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기에도 좋다.

서울 관악구 남현1길 66 ☎ 0507-1308-5801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관악산 계곡 캠핑장

관악산의 맑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면 관악산 계곡 캠핑장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놀이장, 모험숲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동 회장실이 갖춰져 있는 이곳은 평상시에는 쉼터로 사용되다가 6~9월 한시적으로 '백 2일 숲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열중생물 관찰, 야간 숲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취사가 허용되지 않아 식사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seyak.seoul.go.kr)에서 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205-1 ☎ 02-879-6514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6~9월 한시적으로 운영)



봉이전

등산 후 고소한 기름 냄새 입혀진 빈대떡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떠오를다면 들리야 할 곳이 바로 봉이전이다. 오랜 역사와 함께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통의 맛집으로, 빈대떡과 함께 다양한 전통 안주를 즐길 수 있다. 고주전, 뗏잎전, 동태전, 호박전 등 알찬 구성의 모듬전이 인기 메뉴다. 매콤한 골뱅이무침이나 도토리묵을 곁들여면 금상첨화. 프리미엄 막걸리인 해창막걸리를 만나볼 수 있는 점도 이곳을 들리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서울 관악구 봉천로 473-5 1층

○평일 14:00~22:00(명절 당일과 다음날 휴무)



봉천연가

감각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자랑하는 협소주택 독채 감성 속소인 봉천연가는 TV 방송과 매거진을 통해 유명세를 탄 곳이다. 응접실부터 침실, 테라스, 루프탑까지 완벽한 독립 공간을 제공해 친구들과 프라이빗한 파티를 즐기거나 가족과 함께 조용히 쉬기에 이상적인 속소다. 빙프로젝트, 빈백 소파, 캠핑 텐트 등 다채로운 휴식 옵션이 마련돼 있고, 루프탑에서는 도심 속 여유로운 힐링 타임을 즐길 수 있다. 인덕션, 넉넉한 주방, 캡슐 커피머신 등이 구비된 주방은 간단한 요리나 파티를 즐기기에 좋다.

서울 관악구 은천로 33길 26-1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조선 왕실의 상징, 해치

풍수지리 관점에서 관악산(冠岳山)을 화산(火山)으로 여긴 조선 왕실에서는 궁궐 곳곳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물을 배치했다. 이 가운데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光化門)에 세워진 해치(獬豸)는 화기(火氣)를 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유교 국가를 추구한 조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다.

글. 김용덕(한국전통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삼재도회(三才圖會)』 해치(중국 명대 1609년)

해치는 어떤 동물인가?

아득히 먼 중국 요순시대(堯舜時代)부터 등장했다고 전해지는 해치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이물지(異物志)』와 『논형(論衡)』 등 고대 기록에서는 “해치는 외뿔 달린 양으로 성질은 총직하다. 울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게 거짓을 고하는 자를 들이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선악을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해치는 제왕과 신하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중국 초(楚)나라 법관들은 해치를 새긴 관을 썼으며, 조선 역시 지금의 검찰청 기능을 한 사헌부(司憲府) 관복에 해치 흉배(胸背)를 수놓음으로써 곧은 마음가짐으로 정사에 임하도록 했다. 이처럼, 해치는 올바른 정치이념과 도덕을 상징하는 유교의 동물로 자리 잡았다.

“관악산은 수도에서 바라보면
불의 모양을 닮았다고 여겨졌고,
풍수적으로는 불의 재앙을
가져온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불의 위협을 막기 위해 수도 내
주요 시설의 입구 앞에 해치(신화 속
수호 동물)를 두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조선 스타일의 해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270년 동안 폐허였던 경복궁은 1867년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었다. 광화문 해치상 역시 이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당시 최고의 조각가였던 이세옥의 감독 아래 설계되었다. 광화문 해치상은 본래 모습인 외뿔 달린 양이 아닌 사자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동아시아 어떤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불교의 동물인 사자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성스러운 공간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이상적인 유교 국가 재건을 추구한 흥선대원군은 입구를 지키는 사자의 전통을 따르되 유교를 상징하는 해치의 이름을 붙여 새롭게 탄생시켰다. 사자를 닮은 해치는 궁궐 입구를 지키는 역할과 함께 유교의 나라 조선의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독창적인 창안인 것이다.

화기를 막는 조선의 해치

현재 우리는 해치가 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화기를 머금은 관악산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고대 기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불을 막는 해치의 능력은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새롭게 얻게 된 것이다. 화재로 소실된 경복궁은 중건 과정에도 크고 작은 불이 자주 일어났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관악산이 불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에 궁궐 내부에 물의 속성을 지닌 갖가지 상징물을 배치했지만, 화기를 입구에서 막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 이에 광화문을 지키는 해치에게 불을 막는 역할을 부여하여 원천 봉쇄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경복궁의 해치는 유교 국가인 조선을 표방하며 화기까지 누르는 든든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광화문을 비롯하여 궁궐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해치는 오로지 조선 왕실에만 볼 수 있는 조선 스타일의 해치라고 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코스별 난이도

산	코스	총 소요 시간	총 이동 거리	난이도
북한산	백운대-우이구곡 코스	4시간 20분	9.98 km	 어려움
	북한산성-대남문 코스	4시간 10분	10.2 km	 어려움
	사모바위-비봉 코스	3시간	6 km	 보통
	삼천사 코스	2시간 40분	7.33 km	 어려움
	북한산성 12성문 완주 코스	6시간	14.4 km	 어려움
	도봉산 신선대 코스	2시간 30분	6.3 km	 어려움
	도봉산 주능선 코스	6시간	9.32 km	 어려움
	북한산둘레길: 우이령길 코스	2시간	6.42 km	 쉬움
인왕산	선바위 코스	1시간 10분	1.84 km	 보통
	한양도성 코스	2시간 10분	4.1 km	 보통
	홍지문 및 탕춘대성 코스	1시간 20분	2 km	 보통
	부암동 코스	2시간 10분	3.36 km	 보통
	인왕산 자락길 코스	1시간 10분	2.73 km	 쉬움
	인왕산 숲길 코스	1시간 30분	2.9 km	 보통
	인왕산둘레길: 서대문 코스	2시간	3.43 km	 보통
	인왕산둘레길: 종로 코스	3시간 10분	5.71 km	 보통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지 선정부터 준비물, 본인의 체력 수준까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산행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수준의 산행지와 코스를 선택해 보자.

산	코스	총 소요 시간	총 이동 거리	난이도
북악산	창의문 - 백악마루 코스	1시간 30분	3.32 km	 보통
	청와대 - 삼청공원 코스	1시간 50분	5 km	 보통
	청와대전망대 - 춘추관 코스	50분	2.18 km	 보통
	창의문 - 혜화문 코스	2시간 10분	5 km	 보통
	창의문 - 매탄바위 코스	1시간 50분	4 km	 보통
	여래사 - 호경암 코스	1시간 30분	2.48 km	 보통
	북악하늘길 코스	2시간 50분	9 km	 보통
	백사실계곡 - 성균관 코스	2시간	6.14 km	 보통
관악산	연주대 A 코스	1시간 30분	2 km	 보통
	연주대 B 계곡 코스	2시간 30분	4.7 km	 보통
	자운암능선 코스	2시간 30분	4.3 km	 어려움
	학바위능선 코스	3시간 30분	6 km	 어려움
	돌산 코스	45분	1.5 km	 보통
	삼성산 코스	2시간 30분	4.7 km	 보통
	도림천(신림)계곡 코스	1시간 15분	3.4 km	 쉬움
	서울둘레길 12코스	3시간 30분	7.3 km	 보통

안전한 하이킹을 위한 준비물과 계절별 팁

한국의 산은 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험준한 바위와 깊은 계곡 등 위험 요소가 많다.
하이킹을 할 때는 코스와 날씨에 맞는 준비물과 산행 복장을챙겨야 한다.

글. 이영준(마운틴저널 대표)

© 정중원

북한산의 겨울 © 이영준



의류

등산복을 입는 첫 번째 목적은 체온 조절과 에너지 보존에 있다. 등산복은 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흡습속건, 방수 등의 기능성 소재로 된 것이 좋다. 또한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속옷, 보온옷, 겉옷을 적절히 입고 벗는 것이 중요하다. 덥기 전에 벗고 춥기 전에 입는 것이 등산복 착용의 기본이다. 의외로 여름 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등산화

등산화는 용도와 생김새에 따라 경등산화, 중등산화 등으로 구분되지만 바위가 많은 서울 근교 산에서는 이러한 구분보다도 바닥창의 소재가 더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산은 화강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제작된 수인 브랜드보다 국산 브랜드 등산화가 마찰력이 더 우수하다. 두툼한 양말을 신고 발가락이 움직일 정도가 초보자에게 적당한 사이즈다.



배낭

하이킹은 밤을 하는 것이지만 가파른 구간에서는 때로 손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짐은 배낭에 넣고 간다. 당일용 배낭은 20~30리터면 충분하며, 장식이나 주머니가 많은 것보다는 단순한 디자인이 좋다. 배낭에는 물, 맨션, 의복, 식량, 약품 등 생존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긴다.



식량

하이킹은 다른 야외 활동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활동 이므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일상생활에 비해 2배 정도의 열량이 필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식단을 준비해야 한다.

하이킹 식량의 조건

- ▶ 가볍고 부피가 작아야 한다.
- ▶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보관성이 우수하고 버릴 것이 적어야 한다.
- ▶ 영양가가 높고 소화 흡수가 빨라야 한다.
- ▶ 음식물의 이동 보관을 위한 포장에 신경 써야 한다.
- ▶ 무엇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더욱 체력 소모가 크므로 고열량의 탄수화물 위주로 음식을 준비하고, 여름철에는 상하기 쉬우므로 저장성에 중점을 두고 물기가 적은 음식을 준비한다.



계절 준비물

계절에 따라 챙겨야 할 장비가 늘기도 한다. 도심은 봄이라도 산의 북쪽 사면은 겨울이라 이른 봄과 늦가을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의류와 아이젠, 스틱 등을 챙길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호우가 내릴 수도 있으므로 여벌의 옷을 방수팩에 포장해 챙기기를 권한다.

계절별 하이킹 팁

봄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3월 무렵 해빙기는 어느 때보다 산행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헛벌이 드는 양지와 어두운 음지에서 등산로의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바닥이 딱딱한 겨울용 등산화와 아이젠, 윈드 재킷과 보온 의류가 꼭 필요하며, 변덕스러운 날씨에 따라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헤드랜턴도 준비한다.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도 자주 일어나니 안전한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름

휴가철과 방학이 겹친 여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만큼 산악 사고 발생 비율도 높다. 특히 폭우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폭우가 내릴 때는 절대 계곡을 건너서는 안 된다. 여름철에는 미리 모든 장비를 방수팩으로 개별 포장하는 등 방수대책을 잘 세우고 체온 유지를 위해 의류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비를 맞은 뒤 바람이 불면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해가 뜨거운 낮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비해 행이 긴 모자를 준비하고 충분한 물을 준비한다.

가을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하고 태풍이 찾아오기도 하며, 일몰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이라 해도 반드시 보온 의류를 준비하고 늦가을엔 보온 장갑과 방한 모도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봄과 여름보다 산행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하산해야 한다.

겨울

겨울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유지다. 특히 저체온증은 몸이 젖었을 때 발생하기 쉬우므로 산행 중 잠시 쉴 때 땀이 증발하며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겨울 산행의 요령이다. 덥기 전에 벗고 춥기 전에 입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춥다고 얇은 옷 위에 두꺼운 패딩 외투 하나를 걸치고 산행하는 것은 체온 유지에 좋지 않으므로 옷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도록 하자.

환경을 지키는 클린 하이킹

글. 이영준(마운틴서널 대표)



흔적 남기지 않기(Leave No Trace)는 누구나 공감하는 하이킹의 기본이다. 산과 숲에서 즐기는 하이킹은, 반대로 말하면 산과 숲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커라면 당연히 환경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 자연환경에 대한 이 같은 자세는 1876년 미국 최초의 산악회인 애팔라치안 산악회에서 주창한 '대자연의 시민권(Outdoor Citizenship)'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미국 요세미티 클라이미더들은 암벽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클린 클라이밍(Clean Climbing)' 캠페인을 벌였고, 국제산악연맹(UIAA)에서는 1980년 카트만두 선언과 2002년 티를 선언을 통해 산에서의 환경보호가 단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산을 둘러싼 모든 자연과 사람,

문화에 대한 존중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며 세계적인 공감대를 조성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한국산악회 산악인들이 참여해 자연보호현장을 제정한 이후 꾸준히 자연보호 운동을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젊은 하이커들을 중심으로 산행 중 쓰레기 줍는 '풀로깅'이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산을 통해 나타나는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안하는 등 하이커와 산악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국제산악연맹에서 진행 중인 '산을 존중하자(Respect Mountains)' 운동의 7가지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다.

RESPECT MOUNTAINS

BOOK SMART

성수기에 가득한 인파가 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수기에 산을 오르거나 사람들이 덜 찾는 장소를 찾아보자.

TRAVEL WISE

탄소 배출은 집을 나서는 순간 시작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자.

SUPPORT

지속 가능한 등산관광 산업을 목표로 삼는 친환경 브랜드를 지원하고 이용하자.

BE RESPECTFUL

산과 하이커들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가치와 문화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므로 모두를 존중하자.

LEAVE NO TRACE

산에 버린 쓰레기는 식물과 야생동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계곡을 거쳐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RRR&U

하이킹 시 이용하는 재화들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Reduce your impact, Reuse items, Recycle the waste you cannot reuse, Upcycle what you can to reinvent waste into something of new value)

SPREAD THE WORD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함께 지켜나가자.



서울 등산관광
인스타그램

@seoulhikingtourism_official



서울 등산관광
홈페이지

www.seoulhiking.or.kr

